

## 인도네시아 정치발전에 관한 연구: - 이슬람과 군부의 세력경쟁을 중심으로 -

양승윤

세계 최대의 이슬람국인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 세력은 '정교일치'(政教一致)를 지향하며 인도네시아 현대정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다.

화란의 식민통치하에서 이슬람 세력은 정치적으로는 대체로 화란의 식민통치에 순응하였으나, 교육 등 사회운동의 차원에선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하여 일반대중을 동원할 수 있는 정치적 잠재력을 강화한다.

3년 5개월(1942. 3~1945. 8)에 걸쳐 인도네시아를 식민통치한 일본은 인도네시아 사회에 대한 효율적 통치를 위해 반서방적 민족주의 감정을 교묘하게 부추겨 이를 일본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한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최대의 잠재적 정치세력인 이슬람을 정치세력으로 조직하여 이를 식민통치의 도구로 삼는다. 이를 통해 이슬람 세력은 정치적으로 크게 성장하나 독립 이후 등장한 수카르노의 교도민주주의체제하에서 군부에 비해 그 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다.

1965년의 9.30 쿠데타 진압을 통해 집권한 수하르토는 장기집권을 통해 권위주의적 개발독재체제를 확립한다. 이슬람 세력의 정치적 잠재력을 두려워한 수하르토는 인도네시아 건국이념인 뺨짜실리를 이슬람 정당의 지도이념으로 삼게 하는 등 이슬람 세력의 이념적 독자성을 약화시키고 이슬람 세력을 체제내화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한다.

1998년에 6차 연임 임기 만료를 맞는 수하르토가 퇴진한 이후 인도네시아 정치구도에 어떠한 변화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예측이 가능하겠으나, 현재로선 개발독재체제하에서 국가안보와 정치참여라는 '이중기능'을 수행하며 성장해온 군부와 이슬람 세력이 제휴하는 형태로 온전보수세력이 집권할 가능성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된다.

### I. 서 론

이 논문은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로 분류되는 인도네시아에서 전체인구의 88퍼센트를 차지하는 무슬림(Muslim)들이 90년대 후반 수하르토(Suharto) 대통령의 후계구도와 관련하여, 이슬람법 샤리아(syariah)를 근거로 그들의 종교적 목표를 위한 투쟁을 통하여 인도네시아 정치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비이슬람 정부에서 비정치적 종교세력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할 것인가를 구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해서 국제사회에서 인도네시아의 위치와 이슬람의 본질에 대한 간단한 고찰을 필요로 한다.

\* 이 글은 교육부의 지역연구 지원사업에 따른 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된 것임.

첫째로,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국가로서는 최대의 인구·국토·자원을 가지고 있다. 1만 4천 여개의 크고 작은 도서가 동서로 5,000km, 남북으로 2,000km에 걸쳐서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의 적도 상에 넓고 길게 펼쳐져 있는 인도네시아는 192만km<sup>2</sup>의 국토에 1억 8,500만명(1992년 추계)의 인구가 3시간의 시차가 있는 6,000여 개의 유인도(有人島)에 최대종족인 자바족(3,700만)과 순다족(1,200만)을 위시하여 수백 종족으로 나뉘어 200여종에 달하는 지방어를 사용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도서국가이자 세계 제 5위의 인구 대국이다. 동남아 국가의 한 나라인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대륙과 대양주(大洋洲)를 각각 북과 남으로, 그리고 태평양과 인도양을 동과 서에 두고 있어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정향(丁香) 등 각종 향료와 양질의 열대작물(커피·차·담배·설탕)의 확보를 겨냥한 서구열강들에 의한 식민통치시대를 벗어나면서부터 인도네시아는 동서 양 진영의 경쟁적인 유화정책(宥和政策)의 대상국이 되었다. 소련과 중국 등 공산대국은 비동맹(非同盟)운동과 이슬람국제기구(OIC) 등을 통한 제3세계로의 진출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의 적극적인 도움을 필요로 했으며, 미국과 일본 그리고 서구 여러 나라들로서는 인도네시아가 주석과 고무 등 전략자원의 주요한 생산국이라는 점과 특히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말라카(Malaka : Malacca) 해협의 전략적 중요성으로 인해서 인도네시아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필요로 하였던 것이다.

1980년 10월에 실시되고 1981년 9월에 발표된 전국적인 국세조사(國勢調查)에서 인도네시아는 전체인구의 88퍼센트가 무슬림으로 나타났으며, 1986년 현재 인도네시아 전역에 52만 5천개의 이슬람 사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특히 자바의 이슬람은 인도네시아 군도에 이슬람교가 전파되기 이전에 이미 이 지역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던 힌두교와 불교 및 토착신앙의 영향으로 아랍지역의 이슬람과는 다소 다른 형태로 정착되었으며, 일부 지역은 군도적 특성 때문에 이슬람이 도래한 지 7세기가 지난 현재까지도 이슬람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둘째로, 이슬람이 인도네시아에서 다소 변형되고 종교적으로 느슨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알라(Allah)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슬림들은 명백하게 정치지향적 집단이라는 점이다. 무슬림들에게 있어 이슬람 사회는 하나의 공동운명체를 의미한다. 이 공동운명체를 움마(ummah)라 칭하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절대신인 알라(Allah)가 천국에 낙원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지상에도 낙원을 건설하는데 있다. 알라의 가르침을 수록한 꾸란(Al Qu'ran)은 절대진리이며, 이를 따르면 지상에서 가장 홀륭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고 무슬림들은 믿고 있다. 움마는 알라를 반드시 공동사회로서 꾸란의 가르침과 진리를 구현하는데 그 존재 이유가 있다고 본다. 무슬림들은 이슬람교가 종교이자 국가라는 국가관을 갖기 때문에 '이슬람교는 곧 국가'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개인의 사생활이나 공동체 내의 공공 생활을 알라와 알라에 대한 신앙 아래 놓는다. 따라서 이슬람 움마의 특성은 인류역사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혈연적·지연적 공동체가 아니라 종교적 집단인 동시에 명백한 정치적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슬람은 역사를 통해서 정교일치(政教一致)와 신법통치국가(神法統治國家)라는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확실

한 방법으로 대중조직을 강화해 나왔다. 군도적 특성으로 인해서 대중의 정치적 의사전달체계가 불완전했던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 사회의 조직화는 일찍부터 정치참여의 기반이 되었다.

샤리从严治(SI: Syarikat Islam)은 1912년 인도네시아 최초의 이슬람 대중조직으로 결성되었다. 샤리从严治 즉 이슬람 연합은 일찌기 이 나라의 민족주의 운동을 이끌었으며 인도네시아의 독립과 근대화에 일의를 담당하였고, 반공운동에 앞장서는 등 정치 및 사회 분야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SI는 2차대전 초기까지 내부갈등을 겪으면서도 수카르노(Soekarno)가 이끈 인도네시아국민당(PNI: Partai Nasional Indonesia)과 함께 인도네시아 민족주의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일본의 인도네시아 식민통치(1942-1945)는 이슬람 조직을 정치기구화하고 이들의 종교적 활동에 정치색을 강하게 가미하였다. 비정치적이며 SI의 주요 두 주류인 무함마디야(Muhammadiyah)와 나흐다˒울 올라마(NU: Nahdatul Ulama)를 통해서만 인도네시아 대중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낸 일본 식민당국은 정치적 색깔의 착색과 함께 여러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들이 주축이 된 전국적인 조직인 마슈미(Masyumi) 즉, 인도네시아 무슬림협의회를 그들의 수중에 넣게 되었다. 온전한 민족주의 세력들이 대거 참여했던 마슈미는 일본의 의도를 의심하면서도 오랜 서구의 속박을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일본을 이용하여 자국의 독립을 쟁취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이다. 비록 궁극적인 목적이 서로 다르기는 하였으나 일본 식민당국과 마슈미는 각각 그들의 목적 수행을 위한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공동의 보조를 맞추게 되었던 것이다. 전국적인 규모에 강력한 연대의식을 가진 이슬람 조직인 마슈미는 일본 식민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짧은 시간 동안에 막강한 동원력을 가진 집단이 되었으며, 이제까지 샤리从严治의 영향권을 벗어나 있던 제(諸) 계파의 이슬람 조직까지도 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마슈미는 이미 독립 이전에 인도네시아의 가장 강력한 정치세력이 되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1945년 8월 공화국으로 독립한 이후에 온전한 민족주의 세력이 주류를 이룬 공화국 정부 지도층과 이슬람정통주의를 부르짖는 인도네시아 이슬람 지도자들의 관계는 마슈미와 NU가 연립내각의 주도세력으로 참여했던 시기를 예외로 하 고는 대체로 순탄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로 항상 경쟁하고 대립하는 관계로 원관하였다. 군부 또한 정통 이슬람 세력과, 일찍부터 자바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군도에 뿌리 내린 정령(精靈)숭배의 애니미즘(Animism)을 바탕으로 그 이후에 전래된 힌두교·불교·이슬람교가 혼합된 토속신앙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을 이슬람교도인 무슬림(Muslim)으로 칭하는 세력으로 크게 양분되어 있었다. 산뜨리(santri) 계층으로 칭하는 전자는 외세에 저항하는 지하 무장혁명 세력으로 성장하였고, 클리포드 기어츠(C. Geertz)가 『자바의 종교』(*The Religion of Java*)에서 후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한 아방안(abangan) 출신의 군부는 대체로 오랜 화란 식민통치 시기에 외세에 의해서 보호 육성된 뾰리아이(priyayi) 계층이었으므로 이들은 당연히 정부군 쪽에 서게 되었다. 이들 두 무장세력들은 각기 다른 정치적 세력 편에 서서 온전한 민족주의자의 공화국 정부에 대항한 아찌(Acch) 반란으로부터 이슬람국가 건설을 위한 다

률 이슬람(Darul Islam)운동과 이슬람국가를 표방한 인도네시아공화국혁명정부(PRRI) 사건을 거쳐오는 동안 상호경쟁하고 적대시하는 관계로 일관해 왔다. 그런데 독립후의 혁명기(1945-1949)와 의회민주주의 경험기(1949-1957)에 화란세력과 공화국 정부의 정통이슬람 무력화 조치에 따라 정부군들이 이 시기를 이용하여 조직과 체계를 더 잘 정비할 수 있었다. 수카르노의 교도민주주의(Guided Democracy : 1957 - 1965)를 뒷받침 하는 대가로 공화국 군부는 국방·치안이라는 고유한 군부의 임무 이외에도 정치적 역할을 겸할 수 있는 이중기능(dual function)을 갖게 되었다. 어로써 이슬람 세력과 군부는 당연히 수카르노의 나사콤(Nasakom)체제 하에서 첨예한 대립양상을 띄게 되었다.

1965년의 9·30사태 이후에 등장한 수하르토 군사정부는 이슬람 세력의 종교적·정치적 특성을 약화시키고 빤짜실라(Pancasila)체제로 이끌어 갔다. 인도네시아의 모든 이데올로기와 정치체제와 사회구조는 수하르토 정부의, 국민경제 회생을 목표로 한 경제 개발정책에 맞추어 모두 빤짜실라체제 하에 흡수되었고 이슬람 세력도 이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슬람의 정치적 속성은 80년대 후반부터 수하르토에 대한 군부(ABRI)와 골카르(Golkar)의 지지가 약화되면서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다고 믿어진다.

인도네시아 이슬람이 향후 정치주도 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본 논문의 전개를 통해 아래와 같은 세가지 주장을 폐고자 한다.

첫째로, 인도네시아의 정치문화는 강력하고 정치지향적인 이슬람 세력을 포용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으며, 정통 이슬람국가에서의 경우와 달리 인도네시아 이슬람은 단결되고 정치지향적인 성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였다.

둘째로, 그러나 군부·이슬람 간의 갈등과 수하르토 군사정부의 빤짜실라 정책으로 이슬람의 정치적 성향이 퇴색되었으나, 이슬람의 정치적 속성이 소멸된 것은 아니다.

세째, 그러므로 향후 수하르토 후계구도와 관련하여 군부와 골카르 등 통치세력이 분열될 경우 이슬람은 적절한 정치적 역할을 통하여 새로운 군부·이슬람 관계를 모색할 것이다.

## II. 인도네시아 이슬람의 정치적 활성화

### 1. 샤리갓 이슬람의 등장

'이슬람 연합'의 뜻을 가진 샤리갓 이슬람(SI: Syarikat Islam)은 인도네시아의 민족주의 운동을 이끈 초기 이슬람 세력이었다. SI는 화교 상인들에 대항하여 무슬림의 상업과 정치적인 이익을 대변할 목적으로 1912년에 조직된 것으로서 최초의 정치적 성격을 띤 인도네시아 대중조직이었으며 초기 인도네시아 민족주의 운동의 본산이 되었다. SI는 1880년 이후 이슬람세계를 풍미했던 정통이슬람 운동의 일환으로 1912년 메카의 성지순례에서 돌아온 무슬림들에 의해서 무함마디야의 정치적 동반자로서 창설되었다 (Geertz, 1960:126).

이 두 주류에는 정당 뿐만 아니라 사회적·종교적 조직들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조직력을 중심으로 정치 및 종교활동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SI는 1920년대 말 수카르노가 중심이 된 국민당(PNI: Partai Nasional Indonesia)이 등장하고 이념 간등으로 조직이 부破裂되며 이전까지 인도네시아의 초기 민족주의 운동을 이끄는 중요한 세력의 하나가 되었다.

SI는 초기에 화란의 식민정책에 순응하였지만 점차로 화란이 인도네시아인에게 제한된 역할만을 부여하는 데 불만을 품고 1920년대 초에 이르러 아구스 살림(Haji Agus Salim)을 중심으로 비협조정책(히즈라 운동)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슬람의 정치참여가 식민통치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화란은 이슬람활동의 자제를 촉구했지만, 인도네시아 민중의 관심이 이슬람세력으로 집중되는 것을 통치정책으로 막을 수는 없었다. 화란 식민당국은 결국 이를 묵시적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고, SI는 인도네시아의 초기 민족주의 운동을 이끌면서 민중을 정치적으로 자각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1917년 이후 SI는 혁명을 조장하고 맘시즘을 추구하려 했던 일부 공산주의자가 포함된 극단주의자들과 이슬람의 종교적 제(諸) 원리를 고수하려던 온건파 세력 사이에 조직 내의 주도권을 둘러싼 투쟁으로 분열되었다. 아구스 살림은 “무함마드(Muhammad)는 마르코스가 태어나기 12세기 전에 이미 사회주의 경제원리를 설파하였다”고 역설함으로써 SI 내에서 경쟁세력인 공산당을 봉괴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Esterline, 1986:285). 이를 두 세력사이의 투쟁은 1921년에 절정에 달했는데, 이슬람지도자들은 그 해의 제 6차 전국지도자대회에서 공산주의자들은 무신론자라는 점을 들어서 그들의 축출을 천명했고 SI 회원들은 동시에 다른 정당의 당원을 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당에서 쫓겨난 공산주의자들은 노동세력을 이끌고 나가 인도네시아공산당(PKI: Partai Komunis Indonesia)으로 재출현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서 PKI 등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성향의 정당들로 과당(派黨)을 이루어 분열됨으로 해서 SI는 이제까지의 통일된 방향을 상실하게 되었다(Esterline, 1986:285). 이런 과정을 통해서 SI는 통일된 행동강령의 미비와 지도부의 분열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민족주의와 공산주의 세력의 갈등 그리고 이슬람 종교권 내부문제의 불일치와 식민통치 말기의 혹심한 탄압이 부차적인 원인이 되어 급격하게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손주영, 1987:18-19).

이슬람연합 SI가 쇠퇴한 이후 인도네시아 이슬람의 획기적인 부흥을 가져온 이슬람 개혁운동이 일어났다. 이집트로부터 전파된 이슬람 개혁운동으로 1912년에 무함마디야가 설립되어 화란의 식민통치 말기인 1920년대에 가장 성공한 민중조직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무함마디야는 주로 교육·사회·복지 활동에 관여했는데, 이 새로운 조직에 수 많은 인도네시아 무슬림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짧은 기간 내에 거대한 이슬람운동으로 발전되었다. 또한 종교 뿐만 아니라 무함마디야는 정치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어 식민정부를 비판하고 민주주의와 제반 사회법규의 시행을 요구하였으며, 인도네시아인들의 인권에 대한 요구사항도 제시하게 되었다. 이 운동은 정통 이슬람세력으로서 이슬람교의 교리를 가르치는 종교교사인 끼야이(kiyai)들이 체계적으로 발전시켰다. 무함마디야의 급속한 발전으로 전통적인 이슬람 신앙이 위

협받고 있다고 생각한 전통주의자들은 NU를 결성하여 경쟁적인 자세에서 이슬람 교리를 민족주의 운동에 적절히 활용하여 시대적 상황에 따른 민족운동을 시도하였다. 이처럼 무함마디야와 NU 등 대표적인 이슬람세력은 모두 교육 등 사회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제까지 정치나 사회운동을 전혀 알지 못하던 일반대중의 동원을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물리적 수단을 이용한 봉기나 태업 등 비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디까지나 사회발전에 공헌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중운동을 이끌어 나갔다.

여러가지 형태의 이슬람 조직이 20세기 초에 세워졌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은 인도네시아의 초기 대중운동을 이끈 SI와 무함마디야, 그리고 NU였다. SI는 반(反)식비·반(反)자본주의의 입장을 정립한 인도네시아 최초의 이슬람 대중조직이었으나, 1920년 말 이후에는 정치세력화 시도를 중단하고 말았다. 비록 1973년까지 인도네시아 이슬람연합당(PSII: Partai Syarikat Islam Indonesia)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의 장에 남아 있었지만 두 주요 이슬람 조직인 NU와 무함마디야의 위세에 가리워져 있었다. SI의 성립과 때를 같이 한 무함마디야는 자바의 전통적인 이슬람 법정인 끄라톤(Kraton)에 기초한 이슬람 성직자인 울라마(Ulama)들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이 설립자들은 족자카르타(Yogyakarta)와 수라카르타(Surakarta)의 이슬람 법정인 사리야(syariah)에서 종무(宗務)관리로 근무했던 사람들이었다. 이슬람의 도래 이후 귀족계급이었던 자바의 뿐리야이는 항상 산뜨리를 끄라톤에서 이슬람의 종교의무를 수행하는 관리로 고용했다.

이들과 유사하게 무함마디야 추종자들은 족자카르타와 그 주위의 부자 상인출신이었다. 이들 조직의 주요 원칙은 “좋은 일을 하고 나쁜 행동을 삼가라(amar bil maruf, nahianil munkar)”라는 꾸란의 귀절에 충실히 따르는 것이었다. 무함마디야 설립자들의 주요 목적은 자바 사회에서 두 가지 약점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극복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주로 마을 단위의 전통 이슬람 교육이 현대세계의 도전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부력하고 꾸란의 가르침에 역행하고 있다고 여겼다. 그래서 마을 단위로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이슬람을 꾸란(Al Qu'ran)의 가르침에 따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바의 지식계층의 일원으로서 무함마디야는 이교도인 화란인이 어떻게 인도네시아를 통치하며, 어떻게 식민교육제도를 통하여 식민행정요원과 관리로서 혼신할 사람을 교육하는가에 대해서 굴욕감과 거부감을 갖고 지켜보았다(Pye, 1985:268). 이들의 요구는 당연히 식민당국에 의해서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무함마디야는 혁신주의 노선에 따라 ‘좋은 학교와 적절한 교육’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무함마디야의 이름으로 이슬람 교육제도를 설립하였다(Projokusumo, 1990:46-49).

NU는 상기 두 이슬람 조직보다 다소 늦은 1926년 하쉽 아샤리(Kiyai Hasyim Asy'ari)에 의해 무함마디야의 강력하고 빠른 성장에 대한 반응으로 세워졌다. NU는 일반적으로 무함마디야의 현대주의에 대응하는 전통주의와 무함마디야의 아랍식 이슬람에 대응하는 자바 전통적 이슬람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새로운 무함마디야의 현대식 학교와 이슬람 교리를 가르치는 마드라사(Madrasah)는 일반 대중의 큰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이를 교육 기관은 도시 기반으로부터 전통적인 마을 단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제까지 지방의 율라마에게 상당한 권력기반을 형성해 준 중심역할을 하였던 빼산뜨렌(Pesantren)에게 무한마디야의 교육기관은 위협으로 느껴졌다(Fredrick and Soeroto, 1984: 263). 이슬람 사회와 신식교육을 강조하는 이 두 조직은 자바 이슬람 사회에서 주도세력이 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되었다.

NU가 동부 자바와 중부 자바의 여러지역과 남부 깔리만탄에서 강한 뿌리를 내린 반면에 무한마디야는 점차적으로 전국에 걸쳐 도시를 중심으로 번져나가서 전국적인 조직이 되었다. NU 조직망의 중추인 빼산뜨렌은 이슬람의 전통에 기원했다기 보다는 힌두교 등 토착신앙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곳에서는 학식있는 사람이 적은 수의 학생들을 주위에 모아놓고 자신이 직접 교과과정을 결정하여 교육해 나가는 것이었다.

NU와 무한마디야의 양조직은 많은 추종자들을 가진 커다란 조직이 되었다. NU의 종교교사인 끼야이는 빼산뜨렌 운영에만 열중해 왔지만 무한마디야는 유아학교·종합학교·고아워·단과대학·종합대학 뿐만 아니라 병원설립에까지 노력하여 여러 방향에서 성장을 거듭했다. 무한마디야의 교육방은 매우 정교해서 국가 교육제도와도 경쟁할 수 있었다. 이러한 포괄적인 조직망으로 무한마디야는 단지 이런 기관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을 두는 관료적 조직체제를 갖추어 나갔다. 초창기의 이슬람 개혁의 열정은 크게 회석되어 깊은 무슬림들은 무한마디야 내의 숨막히는 관료적이고 지적인 분위기를 불평하게 되었다. NU는 1,200만의 회원을 공언하고 있지만 무한마디야보다 덜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 전통적인 서양 종교기관의 경우처럼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에는 이에 신속하게 따르지 못하는 보수집단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었다.

화란 식민통치 말기 이슬람 세력의 대중운동으로 시작된 인도네시아 민족주의 운동은 이슬람 조직 내부의 분열과 세력경쟁으로 효과적으로 지속될 수 없었다. 새로운 자치국가로서의 시도가 활발했던 시기에 이슬람이 스스로를 정치적으로 소외시키고 새로운 국가설립을 위한 움직임에 적극성도 가지지 않았던 것은 독립 후 이들의 정치적 입지가 그렇게 넓지 않을 것이라는 예고였다. 초기에 극단적 대립을 보이던 이슬람 정통주의자들과 현대주의자들은 정치적·문화적 역할에 있어서 함께 소외되어 갈에 따라 상호이해와 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937년 9월 인도네시아이슬람최고회의(MIAI: Majelis Islam Allah Indonesia) 창설이라는 비중있는 시도를 하였으나, 민족주의 운동의 주체는 이미 이슬람 세력을 떠나 수카르노와 핫타(Hatta) 등 온건한 민족주의자들에게 넘어가 있었다.

## 2. 일본 식민통치와 마슈미(Masyumi)의 정치세력화

### (1) 이슬람의 식민통치 도구화

일본의 인도네시아 식민통치는 3년 5개월(1942.3-1945.8)로 단기간에 마감되었으나, 16세기 이래로 백인불패(白人不敗)를 신화처럼 믿고 있던 인도네시아인들에게는 실로 커다란 충격이었고 또 그런 만큼 인도네시아인들은 일본 식민통치에 대한 기대와 불안

감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은 대동아공영권 건설이라는 식민정책의 우선과제로 인도네시아 대중을 동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민족주의 세력은 일본의 대중동원 정책에 편승하여 화란통치 말기에 발아한 민족의식을 고취하여 민족주의운동을 발전시켜 나갔다. 민족주의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한 이슬람 세력은 일본 점령기간 중에 일본 식민당국의 끈질긴 유혹으로 결국 그들의 식민통치 정책을 위한 전위세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나 마슈미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이슬람 세력은 이 기간 동안에 향후 인도네시아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정치세력으로 무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부수적인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1942년 8월까지 인도네시아는 임시 행정조직 하에 있었으나 그 후에는 일본군 사령관이 관장하는 총독부가 자리잡게 되었다.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은 화란 관리들이 비우고 떠난 자리를 다투어 차지하려고 했으며 일본인 관리들 또한 본국으로부터 쏟아져 들어왔다. 새로운 관리들과 함께 일본은 특히 자바 지역에서 그들을 도와 인도네시아 민중을 동원할 수 있는 대중의 지도자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슬람은 처음부터 일본 식민당국에 의해서 대중동원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되었다.

일본은 1942년 3월 말 경에 이미 종교사무소(Kantor Urusan Agama)를 샤카르타에 설립하고 이때부터 이슬람 활동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총독부의 호리에(堀江)대령은 이슬람 사원에 이슬람교의 심벌(상징)을 갖추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4월에 들어서자 일본은 대중동원을 위한 최초의 시도로 3A운동(Gerakan Tiga A)을 자바 전 지역에서 시작하였다. 3A운동은 일본이 “아시아의 지도자(Jcpang Pemimpin Asia)”이며, “아시아의 보호자(Jepang Pelindung Asia)”인 동시에 “아시아의 빛(Jepang Cahaya Asia)”이라는 그들의 슬로건에서 볼여진 이름이었다(Benda, 1972: 63-82).

일본은 3A운동을 통하여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였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인 관리들의 협조가 거의 없었고, 주요 민족주의자들이 이를 도와시하여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 운동은 매우 강압적인 것이어서 점령 초기에도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인도네시아인은 거의 없었다. 일본은 결국 인도네시아의 민족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화란시대의 민족주의 운동에서 주도적이었던 인물을 이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당시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정치세력으로는 SI의 후신인 이슬람 연맹당(PSII: Partai Syarikat Islam Indonesia)뿐이었다. 일본은 인도네시아의 정치세력을 탄압하는 한편 3A운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대(大)아세아청년전선(BPAR: Barisan Pemuda Asia Raya)이라는 친일 전위조직을 결성하였다. 이와 함께, 일본은 인도네시아이슬람최고회의(MIAI: Majelis Islam Allah Indonesia)의 부활을 허용하였다. 1942년 9월에 3A운동을 주도하던 BPAR의 감시 하에 인도네시아 전국의 이슬람 지도자들이 샤카르타에서 공식적인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기대와는 다르게 MIAI는 그 본부를 수라바야(Surabaya)에서 자카르타로 옮기고, 의장(대표자)으로 원도아미스노(W. Wondoamisno)를 선출했을 뿐 어떠한 친일적인 결의도 하지 않았다. 일본은 MIAI를 대체할 강력한 친일조직의 결성을 심각하게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지도자

들은 그 조직을 존속시키기로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원래 비정치적인 무함마디아나 NU의 지도자보다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PSII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함으로써 일본의 의도에 완전히 어긋나게 되었다. 결국 일본은 이슬람을 통해 인도네시아 대중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오로지 무함마디아와 NU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학교를 가지고 있었고 복지사업을 벌이고 있었으며, 도시지역에서 작은 촌락에 이르기까지 공식적인 기구는 아니나 끈끈한 연계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더욱 일본이 중요시한 것은 그들이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었다.

점령지 국민동원의 필요성이 본국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던 1942년 말경, 일본 총독부의 호리에(堀江)는 끼야이들과 만나며 자바의 여러 지방을 여행하였다. 그는 이 여행을 통하여 끼야이들이 관장하는 빼산뜨렌이 인도네시아의 젊은이들을 동원하고 교육시키는 데 이상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이를 위한 민중동원의 전위조직으로 일본 식민당국은 1942년 11월에 일본인과 인도네시아인으로 구성된 관습법조사위원회(Komisi Penyelidik Hukum Adat)를 설립하였으며, 12월에는 자바의 전 지역으로부터 소집된 32명의 이슬람 지도자들에게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베풀었다(Notosusanto et al., 1977:10-11).

1943년 초부터 일본은 인도네시아 민중동원에 노력을 쏟기 시작하였다. 일본 식민당국의 주도 면밀한 감시 하에 젊은이들에게 사회활동의 기회가 빈번하게 주어졌다. 1943년 4월에는 14세에서 25세 (나중에는 22세로 하향 조정) 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준(準) 군사조직인 세이넨단(Seinendan: 青年團)이 결성되었다. 이 단체는 웬만큼 큰 시골 마을에까지 지단(支團)을 갖고 있었으나 주요 활동무대는 도시지역이었다. 한편, 25세에 35세까지의 청년을 구성원으로 하며 보조경찰의 기능과 소방 및 방공활동을 하는 케이보단(Keibodan: 警防團)이 조직되었다. 1943년 4월 이후에는 헤이호(Heiho: 兵士補助員)가 일본 육군과 해군의 보조군의 역할을 담당할 것을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종전 시까지 약 2만 5천 명의 인도네시아 청년들이 헤이호에 소속되었으며 일본군과 똑같은 기초훈련을 받았다. 전쟁이 끝났을 때, 약 200만 명의 인도네시아인이 이런 조직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그 중 약 60퍼센트 가량이 세이넨단 소속이었다(Ricklefts, 1981: 192).

1943년 3월에 들어서자 기존의 민중동원 조직에 비교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전위조직이 생겨났는데, 국민운동본부(Pusat Tenaga Rakyat)의 두문자를 따서 뿌드라(Putera)라고 칭했다. 왕자 혹은 젊은 남자의 뜻을 가진 약칭 뿌뜨라는 물론 일본의 통제하에 있었으나, 일본은 이 단체의 전면에 수카르노와 핫타 등 친일성향의 온건한 민족지도자를 내세웠다.

일본은 다음으로 자바의 대중동원을 위한 그들의 주요 협력자로서 끼야이들을 발굴해 내려고 힘을 쓸게 되었다. 일본인과 이슬람 지도자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히 일본인과 이슬람 현대주의자(민족주의자)들 간에 그러했다. 라술(Haji Rasul) 같은 도시 민족주의자는 주로 일본 천황에 대하여 경례(敬禮)하는 것에 반대하는 운동을 이끌었는데, 이는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Mekah : Mecca)를 향해서 기도하고 이슬람의 신인 알라(Allah)에게만 복종하는 무슬림의 계율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일본은 결국 이슬람 종교행사 때에는 일본 천황을 향하여 경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허락하였다. 또한 일본은 그들이 일으킨 전쟁을 성전(聖戰)이라고 칭하도록 강요하였으나, 무슬림들에게는 일본인들도 화란인 혹은 여타의 연합군과 마찬가지로 이교도였으며 그들의 이익을 위한 전쟁을 성전이라고 명명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다. 1944년 말 일본은 이와 같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아랍어 사용을 금지했던 포고령을 해제하였다.

도시의 민족주의자들이 일본(인)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은 반면에, 쟈바 등 대도시 근교의 도시화되지 못한 끼야이들은 전자에 비해 일본의 계획에 순종하는 편이었다. 일본 식민당국에 의한 육체적·정신적 그리고 군사적 규율의 조화는 정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온 빼산뜨лен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일본은 이들의 호응에 따라, 1943년 5월 모든 이슬람 교리를 가르치는 교사들을 인도네시아 이슬람교사연합회(PPGII : Pusat Pergabungan Guru Islam Indonesia)에 편성시켜 이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그해 7월부터 일본 식민당국에 의해서 약 60명의 끼야이들이 한 달간의 훈련코스에 입교하기 위하여 지방에서부터 자카르타로 소집되었다. 1945년 5월까지 약 1,000명의 끼야이들이 이 과정을 수료했는데, 자카르타에서 그들은 종교문제에 대한 강의도 들었지만 주로 일본과 군국일본의 대외정책에 관한 선전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일본의 정책목표에 매우 가치있는 존재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MIAI가 끼야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자 일본 당국은 이를 차단시켰다. MIAI의 지도층은 또한 지방의 이슬람과 연계를 맺으려 하였으나, 일본 당국은 이미 그런 연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야이 등)과 직접 관계하는 방식을택하였다.

1944년에 들어서면서 일본 식민당국은 식민통치 초기보다 더 가혹하게 인도네시아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시작했다. 1943년 10월 일본은 로부샤(romusya: 勞務者)라고 칭한 공병(工兵)의 징집을 명령하였다. 이들은 주로 쟈바 지역에서 강제 차출된 농부들이었는데 인도네시아를 떠나 멀리 태국과 버마에까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는 어느 곳으로나 강제로 동원되었다. 동시에 일본은 낮은 가격으로 정부(일본 식민정부)에 식량을 강제 매출도록 하는 새로운 법령을 실시하기도 했는데, 이는 다름 아닌 일본군에 식량을 공급하기 위한 강제 징발제도였다.

같은 시기(1943년 10월)에 일본은 인도네시아의 청년단체 중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단체인 빼따(Peta: Pembela Tanah Air)라 칭하는 방위군을 창설하였다. 이것은 인도네시아인 의용군이었으며 종전까지 쟈바지역에 약 3만 7천 명, 수마트라 지역에 2만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헤이호와는 달리 빼따는 공식적인 일본군의 일부는 아니었으나, 연합군의 공격에 대항하는 예비계릴라로 사용할 속셈이었다. 빼따의 장교단은 행정 관리들, 교사, 끼야이들 그리고 구(舊)화란 식민군의 인도네시아 병사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빼따의 훈련은 헤이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규율이 엄하고 지독했으나, 일본은 인도네시아인의 민족주의 사상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어려운 훈련을 이끌어 나갔다.

## (2) 마슈미의 등장과 정치세력화

일본은 1943년 10월 또 다른 이슬람 통제기구를 창설하였다. MIAI는 해체되고 인도네시아 전역에 지부를 둔 마슈미(Masyumi : Majelis Syuro Muslimin Indonesia)로 약칭되는 인도네시아무슬림협의회가 MIAI를 공식적으로 대체하였다. 마슈미의 창설과 함께 이제까지 일본과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MIAI의 지도자 등 도시 민족주의자들은 일본에 의해서 완전히 무시되었다. 한편, 마슈미는 무함마디야와 NU의 지도층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되었다. 마슈미는 NU의 창설자인 하쉼 아샤리(Hasyim Asy'ari)에 의해서 대표되었으나, 그는 주로 좀방(Jombang)에 있는 그의 빼산뜨렌에 머물러 있었고, 그의 아들인 와히드 하쉼(Kiyai Haji Wakhid Hasyim)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되었다. 마슈미의 수뇌부는 1명의 의장과 8명의 부의장으로 구성되었는데, 무함마디야와 NU 사이의 팽팽한 세력경쟁을 반영하여, 무함마디야 측이 5명이고 NU가 4명이었으나 의장직은 NU측에 돌아갔다(Benda, 1972:185-186).

마슈미는 창설 초기에 단지 NU와 무함마디야 출신의 사람들로만 운영되었으나, 시간이 지나자 많은 끼야이와 울라마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1943년 12월 초에는 일본 총독부의 주선으로 마슈미의 지도자들과 끼야이·울라마 간에 회합이 열렸고, 그 결과 자바 지역의 많은 끼야이와 울라마들,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대거 마슈미에 가입하게 되었다.

종전에 접어든 일본은 1944년 1월 초에 다시 뿌뜨라를 해산하고, 14세 이상의 자바인을 대상으로 자바 호꼬까이(Himpunan Kebaktian Rakyat Jawa)를 발족시켰다. 일본 총독이 이 단체의 우두머리였으나, 수카르노와 마슈미의 하쉼 아샤리가 고문직에 취임하였고 실질적인 운영은 핫타와 민수르가 맡았다. 일본은 물론 이들 인도네시아 민족의 최고 지도자들을 그들의 목적에 최대한 이용하려 하였으며, 인도네시아 민족 지도자들 또한 그들 나름대로 일본이 받는 이 조직을 잘 이용하였다. 수카르노는 특히 자바민족의 애국조직인 자바 호꼬까이 선전여행을 통하여 인도네시아 대중의 최고 지도자로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자바 호꼬까이의 발족과 함께 해산된 뿌뜨라의 경우와는 정반대로 마슈미는 급속하게 그들의 세력을 넓혀 나갔다. 마슈미는 자바와 수마트라의 많은 대중에게 이슬람의 가르침과 실질적인 혜택을 적지 않게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친일 경향으로 민족주의자들과 뾰리아이들의 미움을 사게되었다. 특히 무함마디야 측 마슈미의 고위 지도자가 1944년 2월 일본에 충성을 맹세한 이후에 더욱 그러하였다. 마슈미의 실질적인 지도자인 와히드 하쉼도 마슈미의 추종자들에게 일본에 충성할 것과 그 충성의 표시를 분명히 나타내도록 선전하였다. 호꼬까이는 대중동원과 훈련 및 정보수집을 위하여 전 주민을 10 내지 20가구 씩 묶어서 루꾼 떠땅가(Rukun Tetangga)를 조직하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련 혼장이나 하급 공무원 그리고 지방세력가들을 이 조직의 장(長)에 임명하였다. 일본은 이 조직을 도나리구미(隣組)라 하여 이를 통하여 중앙의 각종 지시를 하달하고 약소한 배급품(쌀, 설탕, 담배, 옷가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오랜 화란통치를 통하여 행정력이 거의 미치지 않았던 오지(奥地)에까지 정치에 바람을

일으켜 인도네시아 전역에 민족운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1944년 5월에 인도네시아 이슬람최고법원(Mahkamah Islam Indonesia)의 수장(首長)은 도나리구미가 인도네시아 이슬람사회의 가르침인 고뚱로용(gotong-royong: 상부상조)과 일치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Benda, 1972: 191).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인도네시아 대중에 대한 통제력을 점차 약어가고 있었다. 1944년 2월에 식량징발에 항거하는 첫번째 농민저항이 서부 자바의 뿌리앙안(Priangan) 지역에서 발생하였으나 일본 현병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혔다(Departemen Pertahanan dan Keamanan, 1976:73-74). 연이어 이와 유사한 폭동이 같은 해 5월과 8월에 같은 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끼야이 등 이슬람 지도자들이 지휘하거나 선동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농민 저항운동이 곳곳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다. 일본 식민당국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바의 곳곳에 마슈미의 지부를 설치하고 하첨 아샤리로 하여금 이를 관찰케 함으로써 지방의 이슬람 세력에 대한 확고한 지배력을 행사하고자 하였다.

마슈미가 일본 식민당국에 의해서 가장 효과적인 인도네시아 이슬람 사회의 민중동원 매개체로 발탁이 되어 점차로 정치적인 세력으로 부상하게 된 일본 식민통치 기간(1942-1945)은 비록 길지는 않았으나, 하나의 비정치세력이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정치적 세력으로 탈바꿈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여러 과정과 많은 사건을 거쳐서 마슈미는 일본 식민정부의 일개 행정부서처럼 인도네시아 이슬람의 친일정책에 큰 봉을 하였으므로, 이들은 일본의 식민통치 말기에는 민족주의 세력과 뿐리아이 계층으로부터 심한 질시와 혐오감을 유발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슈미는 이 기간동안 전통적인 이슬람 사회의 조직과 체제를 정비하여 대규모의 군중동원 능력을 갖추었으며, 인도네시아 민중들에게 ‘조국’과 ‘민족’이라는 민족주의 사상의 발아에도 기여하였다.

### 3. 독립 인도네시아에서의 이슬람의 정치참여

#### (1) 의회민주주의 경험기와 마슈미당의 집권

인도네시아 이슬람 세력은 심각한 내부적 분열과 세력경쟁을 둘러싼 갈등에도 불구하고 일본 점령기(1942-1945)와 형식적인 독립(1945.8.17) 이후의 자주독립을 위한 혁명기(1945-1949)를 거치는 동안 반식민·저항민족주의 형태의 민족주의운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때때로 통합된 형태를 나타내었다. 화란 식민통치 말기에 적극적인 민족주의운동을 전개한 민족주의자들에게 주도권을 상실했던 이슬람 세력은 일본 점령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 시기에 인도네시아 이슬람 세력은 마슈미를 중심으로 하여 민족주의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해 나갔다. 일본 식민정부는 대중동원정책의 일환으로 마슈미를 중심으로 이슬람 지도자를 회유하여 이들을 통해서 공동운명체로서의 전통적인 집단의식을 인도네시아 무슬림 사회에 확산시켰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일본의 식민정책을 이슬람 지도자를 포함한 민족주의자들은 인도네시아 국민대중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수단으로 역이용하였다. 그러나 2차대전이 끝난 후 일본의 패망과 함께 화

란이 종전의 지배권 회복을 목적으로 인도네시아에 재점령을 시도함에 따라 이제까지 소원했던 마슈미와 아방안 무슬림들 중 뿐리아이 계층이 주축을 이룬 민족주의 세력이 대(對)화란항쟁을 위하여 공동투쟁의 장을 마련하였다. 일본군 무장해제의 명분으로 인도네시아에 재상륙한 화란군에 대한 인도네시아 민족주의 세력의 저항으로 전개된 혁명기는 반외세항쟁과 이제까지의 전통적인 질서와 기존체제에 대한 도전과 변혁을 요구하는 사회혁명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 기간을 통하여 종교적 정통성과 역사적 전통성으로 구분되고 화란의 분리통치정책으로 심화되었던 인도네시아 이슬람의 양대 주류인 아방안(abangan)과 산뜨리(santri)가 통합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를 세력 간에 때때로 분열의 양상도 표출되었지만 궁극적인 목표인 ‘조국의 완전한 독립’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었다.

새롭게 탄생한 인도네시아공화국은 수카르노를 대통령으로 하고, 핫타를 부통령으로 하여 출범하였다. 일주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인도네시아는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중심제의 정부를 규정하는 한편 팬짜실라(Pancasila)로 명명된 최고신에 대한 신앙·인도네시아의 통일·사회정의·민족주의·민주주의 등 다섯가지 원칙의 철학적 틀을 갖춘 내용이 담긴 헌법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대통령과 부통령, 그리고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최고기관인 국민협의회(MPR : 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 구성원의 선출방법에 대해서는 이 헌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국가 최고 통치기관으로서는 각계 각층을 대표하여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어 대통령과 내각에 자문을 하는 인도네시아중앙협의회(KNIP : Komite Nasional Indonesia Pusat)가 공식적인 선거가 이루어질 때까지 제반 역할을 하게 되었다. KNIP는 독립 이전부터 일본 식민당국의 비호하에 활동을 하고 있던 독립준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카르노와 핫타 등 독립지도자들에 의해서 인도네시아의 독립 직후인 1945년 8월 22일에 설립되었다.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KNIP는 샤카르타(후에 족자카르타로 이전)에 본부를 두고, 1950년 8월 내각책임제를 규정한 공화국 잠정헌법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인 국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신생 인도네시아공화국은 화란 왕국과 연계된 인도네시아 연방 수립에 관한 내밀한 계획을 가지고 상륙한 화란군에 의해서 혁명기의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양측 간의 수차례의 협상과 유엔의 중재 노력으로 1949년 12월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는 화란과 연방국가를 결성하는 데 이르게 되었다. 연방국가의 잠정헌법에 따라 1950년 8월 KNIP가 의회(DPR : Dewan Perwakilan Rakyat)에 그 기능을 넘겨줌으로써 샤카르타 정치인들은 화란의 다당제 민주주의 방식으로 의회민주주의제도의 형식을 갖추었다. 내각은 각 정당의 의석수와 직결되어 있는 단원제 의회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었다. KNIP의 구성이 주요 변수가 되었던 새로운 의회는 1950년의 잠정헌법을 토대로 각 계파간의 협상에 의해서 232명으로 구성되었다.

제 1당은 마슈미당으로 49석(21%)을 차지했으며, PNI는 36석(16%), PSI는 17석(7.3%), PKI는 13석(5.6%), 그리고 카톨릭당은 9석(3.9%), 기독교당은 5석(2.2%), 무르바(Murba)당은 4석(1.7%)이었다. 42퍼센트 이상의 나머지 의석은 중도계 정당과 군소 정당 및 무소속이 차지하였으며, 이들 중 어느 당도 17석 이상을 점유하지 못하였다. 과

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강력한 정당의 부재는 강한 추진력을 가진 내각을 구성하는 데 절대적으로 불리하였다. 그러나 당시 샤크르타의 정치인들은 일반적으로 국민적 선에 의한 총선기가 실시되면 의회를 구성하는 정당이 단순화되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마슈미당은 NU 중심의 전통주의자들과 무학마디야 중심의 현대주의자들의 연합 정당으로서 전국에 걸친 조직력과 지지기반이 확고하였으나 약 30개의 정당들이 난립한 당시 상황에서는 강력한 내각을 결성하기 위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기는 불가능하였다.

마슈미당의 정치적 기반은 인도네시아 이슬람 사회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온 끼야이와 올라마들 그리고 반식민운동과 반화란 투쟁에 참여하였던 히즈불라(Hizbulah)와 사비릴라(Sabililah) 출신 무장투쟁 세력들과 많은 토착 자부가 계층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슈미당은 이와 같은 절대적인 이슬람 색채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에는 공식적으로 이슬람교를 국가이념으로 한다는 당의 강령을 내세우지 않았다.

의회민주주의 경험기의 첫 내각은 마슈미당의 낫시르(Mohammad Natsir)가 이끌었는데, PNI와 PKI가 제외된 채 사회당(PSI)이 포함된 군소정당과 연합하여 마슈미당은 대내적으로는 국가안보와 국군창설, 그리고 혁명체제의 종식 등 국가정책의 효율화에 우선권을 두고 경제복구에 진력하였다. 동시에 교육시설의 확충과 정부 홍보활동을 통한 민족의식의 확산에 노력하였고 반공적 입장을 취하였다. 대외적으로는 명실상부한 인도네시아 독립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목적으로 적극적인 중립노선을 취하였으며 효과적인 경제부흥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을 비롯한 서구열강에 대해 호의적인 자세를 견지하였다. 이 시기는 언론의 자유와 사법권의 독립, 정부에 대한 비판의 자유 등이 보장되었고 행정의 정치적 중립에 부분적으로 성공함으로써 정부기능, 경제 및 산업, 교육, 사회안정 등의 부문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또한 1950년 9월에는 큰 어려움 없이 유엔에 가입하였으며 국내교육의 발전도 협저하였다(Ricklef, 1981: 226). 그리고 낫시르 내각 당시의 국가경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한국전쟁으로 인한 수출호조로 상당한 경제적 성과가 있었다. 즉, 한국전쟁 발발로 각종 공산품의 국제수요가 급증하여 1951년 중반까지 인도네시아산 원자재 수출과 이에 따른 관세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성공적인 정책들로 인하여 마슈미가 종주세력으로 구성된 낫시르 내각은 정치·경제·행정·군사 등 제 분야에서 어느 정도 확고한 위상을 정립하는 농시에 국민들의 신임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성공적으로 수행된 정부정책이 있었던 반면에 서부자바에서 정통 이슬람세력의 반화란·반공화국 정부수립을 내세운 다른 이슬람(Darul Islam)운동이 확대되고 있었고, 이리안(Irian) 주권회복에 대한 화란과의 협상에는 조규의 진전도 없었다. 독립 후 지나치게 비대해진 관료제의 축소계획에서도 낫시르 내각은 성공을 기두지 못하였으며, 수카르노의 역할을 상징적인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이었다. 이러한 내각의 압력에 대해 수카르노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고 점차 PNI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려고 시도하였다. 낫시르 내각은 1951년 3월에 퇴진하게 되었는데, 이는 의회에서의 지지기반 확보의 실패와 동시에 대내외 복잡한 정책에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

기 때문이었다.

낫시르에 이어 같은 마슈미당의 수끼만이 마슈미와 PNI의 연립정부를 구성하였다. 수끼만 내각은 재임기간 동안 대내적으로 각급 은행을 국유화하고 대외적으로 친서방·반공노선을 견지하는 정책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수끼만 내각 또한 단명하고 말았다. 그 주된 원인은 마슈미 내의 지도부를 현대주의자들이 장악하고 있었지만 1952년에 들어서면서 수끼만이 이끄는 자바계와 낫시르가 주도하는 비자바계로 분열되어 그 조직력이 크게 약화된 데 있었다. 내각 구성을 둘러싸고 본격화된 이슬람 세력의 분열은 '자바 대 비자바'라는 지역감정과 '전통주의 대 현대주의'라는 이념적 갈등으로 점차로 심화되었는데, 1955년의 총선기로 분열과 갈등의 양상이 극명하게 표출되었다.

## (2) 인도네시아 제 1차 총선거

마슈미당의 하라합(Burhanuddin Harahap)이 NU와 PSI의 지지를 어렵게 얻어내어 연립내각을 구성한 후, 1955년 9월에 인도네시아 최초의 총선거가 치루어졌다. 총선거에는 등록된 총 유권자의 91.5퍼센트에 달하는 3,780여만 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표 1>과

<표 1> 1955년 총선거에 의한 정당별 득표현황

정당별	총 득표수	득표율	의석수
PNI	8,434,653	22.3	57
Masyumi	7,903,886	20.9	57
NU	6,955,141	18.4	45
PKI	6,176,914	16.4	39
PSII	1,091,160	2.9	8
Parkindo	1,003,325	2.6	8
Partai Katolik	770,740	2.0	6
PSI	753,191	2.0	5
Partai Murba	199,588	0.5	2
기타 규소정당	4,496,701	12.0	30
합계	37,785,299	100.0	257

자료: Suryadinata(1982:74-75)와 Ricklefs(1981:238)에서 재구성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정당선택과 선거운동 모두 자유로웠으며 30개 이상의 정당이 경합을 벌였다. 이들 중 PNI, 마슈미, NU, PKI 등 4개 정당만이 조직을 잘 갖춘 정당이었다. 이를 중 마슈미는 주로 자바 외곽도서에 기반을 둔 반면에 PNI, NU, PKI 등은 자바인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중동부 자바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Suryadinaata, 1982:1).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마슈미는 총 257석 중 57석을 차지함으로써 PNI와 함께 제 1당이 되었고 이슬람정당 중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하였다. 마슈미에 이어 NU가 45석, PSII

가 8석, Pertti가 4석, PPTI가 1석으로 이슬람 정당의 총 의석수는 115석에 달하였다. 마슈미와 NU 그리고 PSII 이외에도 Pertti(Pergerakan Tarbiyah Islamiyah)와 PPTI(Partai Politik Tharikat Islam)이 이슬람정당임을 내세워 총선거에 입했다.

가장 많은 득표(8,434,653표)를 한 PNI가 자바의 전 지역에서 고루 높은 득표율을 나타내어 총 57석 중 44석(동부자바 14석, 중부자바 19석, 서부자바 11석)을 차지하였으나, 마슈미의 경우는 자바 지역에서는 16석에 불과하여 PNI에 크게 열세로 나타났으나, 자카르타(2석)를 위시하여 수마트라(16석), 누사땅가라(3석), 칼리만탄(5석), 술라웨시(6석), 말루쿠(1석) 등 전국에 걸쳐 고른 득표율을 보였다.

제 3당이 된 NU는 빼산뜨렌이 집중되어 있는 동부자바(20석)와 중부자바(11석) 등 두 지역에서의 성과가 15개 지역의 총 의석수 45석의 70퍼센트에 달하였다. 한편, PKI는 자바 중심으로 지지세력을 확보해 나왔기 때문에 자바를 제외하고는 수마트라에서 약소한 성과(4석)가 있었을 뿐 다른 지역에서는 득표와 전혀 연결되지 않았다.

1955년 총선은 다수 정당들의 난립과 지지기반의 난맥상으로 정치 혼란 해결보다는 더욱 불안정한 국면으로 이어졌다. 마슈미의 하라합 내각은 새로운 의회의 사업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내각을 유지해 나갔다. 하라합은 PNI 출신 고위 관리를 좌천시키고 그 자리를 마슈미와 PSII의 인물로 바꾸어 나갔다. 그러나 1956년 1월 NU가 하라합 내각에 대한 자신들의 지지를 철회하자 내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 같은 해 3월 초에 총사퇴하게 되었다.

1948년부터 연립내각 정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마슈미당은 의회민주주의 상반기에도 다른 이슬람 정당들과 연립정부 구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으나 1955년 총선 이후 그 영향력은 점차로 쇠퇴하였다. 마슈미가 의회민주주의 경험기의 중추적인 정당으로서의 위상유지에 실패한 첫째 원인으로는 계속된 정쟁으로 인한 실정의 누적을 들 수 있을 것이며, 둘째로는 실정과 관련하여 NU가 마슈미에서 탈퇴하는 등의 끊임없는 내부 분열, 이해관계에 따른 알력과 간등을 들 수 있다(Noer, 1973: 369-388). 이와는 달리 민족주의 세력이 이끈 PNI의 꾸준한 성장과 함께 수카르노의 위치가 점차로 부각되면서 마슈미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하락된 것도 한 가지 요인이 될 것이다.

제도정치에의 참여를 강력하게 추구했던 이슬람 세력으로서는 신생 인도네시아공화국의 자카르타 정부를 이끈 민족주의자들과 이들의 친밀 민족주의운동에 회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던 정통 이슬람주의자가 화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슬람지상주의의 최종목표에 공동보조를 취하기 위한 시도가 수포로 돌아갔다. 마슈미 지도자들이 비록 의회민주주의 경험기 동안 몇 차례 단명 내각을 이끌었지만, 다당제 연립내각제 하에서 무슬림을 위한 정책개발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서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의 신생국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이슬람계 정당들은 의회민주주의 경험기 동안에 계파와 지역 그리고 지지자를 놓고 상호 세력경쟁을 통하여 극심한 분열상을 나타내었을 뿐이었다. 더구나 오래 전부터 자카르타 정치권에서 소외되어온 비자바 무슬림들의 증대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도 역부족이었다. 이로 인해서 이슬람 세력은 취약한 민족적 지지기반을 던고 확고한 정치적 기반을 다질 수는 없었다.

인도네시아에서 의회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교도민주주의 시기로 넘어가게 된 사실을 피이스(Herbert Feith)는 마슈비와 PSII 등 실용주의 세력(pragmatists)이 수카르노와 군부 그리고 PNI나 PKI 등 정치지향적이고 정권지향적인 연대추진파(solidarity-makers)들과의 경쟁에서 패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 (3) 교도민주주의와 군부의 정치세력화

의회민주주의 경험기를 통하여 정책결정에 주요 행위자로 참여하였던 이슬람 세력이 교도민주주의 시기에 들어와서 그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어 점차로 정치권에서 소외되기 시작하였다. 군부의 지지를 받은 수카르노 대통령이 의회민주주의 체제를 의도적으로 무력화하였고, 군부와 민족주의 세력이 크게 부상하였기 때문이었다. 의회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군부는 의회체제 외곽에 있었으므로 자신들의 실질적인 이권을 돌아볼 수가 없었고 PKI는 이슬람 세력에 밀려서 내각에서 제외되었으며, 수카르노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병목상의 대통령이었다. 이를 세 세력은 이슬람이 비록 분열되어 하나의 집결된 힘을 나타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정치의 중추세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의회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모두 만족스런 위치에 있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수카르노는 모든 정당을 해산하여 무력화시키고 대통령 중심제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려는 목적으로 의회민주주의 시기를 통하여 불만이 쌓였던 군부와 PKI의 세력을 이용하여 교도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할 수 있었다. PKI는 수카르노의 비호 하에 1955년 선거 아래로 계속 성장하여 1957년 경에 이르러 수카르노·군부와 함께 자카르타 정부의 가장 중요한 권력의 3요소의 한 부분이 되었다(Suryadinata, 1982:2-3).

수카르노는 자신의 주된 통치기반 세력으로 나사콤(NASAKOM)을 고안하였다. 나사콤은 수카르노가 내세운 국민화합이념으로 민족주의 집단(NAS: Nasionalis), 온건한 이슬람 종교집단(A: Agama), 공산주의 집단(KOM: Komunis)이 정치일선에서 삼각체제를 이루어 상호경쟁과 견제를 하면서 수카르노 대통령에 의해서 이용되었다(Liem, 1988: 881). 특히 종교세력으로 나사콤 체제에 끼어든 이슬람은 현실적으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였다. 수카르노에 의해서 외곽도서를 중심으로 한 정통 이슬람세력들은 분리주의자로 낙인이 찍혀 불법화되었으며, 샤바를 중심으로 한 온건파 이슬람도 분열되고 그 중 어느 체제와도 잘 융합하는 NU가 중심세력이었으므로 나사콤을 구성하는 다른 두 세력에 비해서 크게 뒤지고 있었다.

의회민주주의기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던 수카르노가 교도민주주의를 도입하여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은 인도네시아 공화국 혁명정부(PRRI)가 수마트라에 등장한 이후부터였다. PRRI 반란은 이제까지 정치권에서 소외당해온 산뜨리계 정통무슬림들이 자신들의 의도와는 달리 공화국 정부가 점차로 샤바 중심의 아방안계 군부와 민족주의 세력으로 채워져 나가자 이에 대한 반발로 폭발시킨 것이었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수마트라를 중심으로 비자바인들이 지난 샤바인의 우월감에 대한 반감과 지역주의에 의한 샤바와 외곽도서 지역 간의 대립이며 나아가서 이러한 지역주의를 바

탕으로 한 자바문화와 비자바문화의 충돌이었다(Pranarka, 1985: 99). PRRI의 반란은 비자바계의 일부 지역 사령관과 군 장교들이 가세하고 마슈미와 PSI당원들이 동조하여 수마트라 빠당(Padang)을 중심으로 반외세·반자카르타운동으로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반정부 집단행동에 대해서 자카르타 정부는 즉각 정부군을 투입하여 반란을 진압하는 동시에 마슈미당과 지도자 및 낭위들을 탄압하였다.

PRRI 사건으로 인해 마슈미당은 중앙의 군부 지도자와 정부 측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남기게 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PKI는 그후 계속해서 수카르노에 접근하여 당의 위치를 견고히 하여 이슬람 정당들의 부상을 저지하는 등 반공세력을 위협하였다. PKI는 사회각계 각종에 급속도로 진출하였는데, 특히 농촌지역에 깊숙히 침투하여 정치적으로 무지하고 토지소유를 염원하며 살아온 빈한한 농민층에 파고들었다. PKI는 농민선선(BTI)을 동원하고 농민들을 교사하여 이슬람 종교지도자와 민족주의 정당지도자 등 마을의 전통 귀족과 원로들을 적으로 몰아세우는 한편 이슬람 사원을 침범하고 부농의 토지를 강점하며 우익인사들에 대한 테러를 자행하고 군인과 경찰관 살해 등 공공질서를 파괴함으로써 정부의 하급기관을 조직적으로 점거해 나갔다(Ricklefs, 1981:262).

한편, 군부는 PRRI 외에도 1950년대 후반에 디를 이슬람운동의 일환으로 발생한 술라웨시의 반정부운동, 서부 자바에서의 금진주의 이슬람집단에 의한 반정부운동 등 갖가지 폭동과 반란을 진압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수카르노와 PKI에 맞설 수 있는 정치세력으로 급격히 성장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여타의 정당들은 점점 쇠퇴해갔는데, 그 중에서도 대다수 지도자들이 PRRI 반란에 연루된 마슈미가 가장 심각하였다. 그러나 수카르노의 나사콤체제에 순응한 NU만은 여전히 끼야이와 농촌지역의 빠산뜨렌 주변에 있는 그들의 지지자들과의 긴밀한 연계를 고수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1960년 1월 수카르노가 도입한 정당간소화법과 정당규제령에 의해서 마슈미와 PSI는 PRRI 사건 연루를 이유로 정치권에서 제거되었다. 1963년에는 무슬림청년운동인 인도네시아이슬람 청년운동(GPII: Gerakan Pemuda Islam Indonesia) 활동도 금지당하고 무함마디야의 경우와 같은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활동도 저지 않게 규제되었다. 그러나 이슬람대학생협회(HMI: Himpunan Mahasiswa Islam)나 일부 온건한 이슬람관계 청년조직들 등은 그대로 존속되었다. HMI는 NU와 기타 비이슬람 정당들이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1965년 4월 수카르노에 의해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았다. NU 또한 정당으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은 유지하였지만 정치분야에서 자신들의 이익보존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활동이 활발하지는 않았다. 수카르노의 정당규제 관련 법령으로 교도민주주의 말기에 제이슬람 정당은 정치세력으로서의 결집력 뿐만 아니라 정당 자체의 통제력도 급격하게 약화되어갔으며 점차로 정치권에서 소외되기 시작했다.

1964년부터 1965년에 걸쳐 PKI는 수카르노의 편애로 조직과 세력을 강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조직적으로 경쟁상대인 마슈미당을 공격함으로 군부와 이슬람을 중심으로 한 반공세력들이 상호협력하여 PKI에 공동 대처하게 되는 예상치 않았던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세 정치세력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수카르노의 건강이 악화되자 PKI에 대해서 비판적인 6명의 장성이 살해되는 9·30 사태가 1965년 9월 30일에 발생

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제까지 PKI에 의해 고통받던 이슬람 세력과 군부와 수많은 민족들은 PKI에 대한 철저한 보복을 가하였다. 수하르토가 지휘하는 육군은 이슬람 조직들을 중심으로 반공세력을 규합하여 공산당을 소탕하는 데 앞장섰다. PKI와 여타의 공산세력 소탕에 있어서 이슬람정당과 무슬림 청년조직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무신론을 주장하는 공산주의 이념에 대한 반감도 크게 작용하였다. 이 전압과정에서 공산주의자라 자칭했거나 공산주의자로 인정된 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1966년 3월 13일에 PKI와 모든 하부 조직은 공식적으로 해산되었으며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이들의 활동이 불법화되었다. 이로써 좌익세력인 PKI와 우익세력인 군부와 이슬람정통주의자 간의 충돌이 종식되었다. 9·30 사태로 부상(浮上)한 수하르토는 1967년에 수카르노로부터 정권을 인수한 후 전임자를 제거하는 한편 수카르노의 통치세력인 나사콤 체제를 붕괴시키고 PKI를 불법화함으로써 교도민주주의시대가 마감되었다.

9·30 사태는 PKI가 수카르노 사후에 군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계획되어진 것이었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군부세력을 크게 신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강력한 조직력과 물리적 강제력을 지닌 군부는 국가안보와 치안질서 회복기능에다 정치활동이라는 이중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다양한 정치조직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후원하여 민족주의기에 커다란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였던 이슬람정당은 교도민주주의기에 내부분열 및 비이슬람 정당과의 경쟁과 갈등, PRRI 반란, 이념의 대립 등으로 정치영역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슬람은 정치의 주체에서 점차로 소외되었으며, 음마(ummah)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염원은 더욱 멀어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초기에 정치권으로부터 소외되고 반화란 무력투쟁세력으로부터 멸시와 모멸을 당하던 정부군은 수카르노와 민족주의 진영의 성장과 함께 점차로 정규군으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 III. 군부 권위주의 체제와 이슬람의 탈정치화

#### 1. 군부 권위주의 체제의 등장

수카르노는 1957년 2월 교도민주주의를 선포하고 정치 난국을 수습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국민평의회(Dewan Nasional)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였다. 이 법령으로 인해서 1957년 5월에 국민평의회가 설치되었고 군부는 국민평의회의 참여를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정치참여가 본격화되었다. 이 법령에 의하면, 국민평의회 회원의 자격은 사회직능단체(Golongan Karya Sosial), 주요 공무원, 군인, 주요 각료, 지역대표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1958년 6월 쥬안다 내각의 개편시 현역인 수쁘라요기(Soeprayogi) 장군이 입각한 것을 계기로 다수의 군인이 각료, 정부 각 부서의 고문, 재외 공관장 등의 형태로 일반 행정분야는 물론이고 외교분야에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1958년 후반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오던 군부를 포함한 정치체제의 문제는 1959년

1월 군부에게 국민평의회의 35석을 할당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회적능그룹에게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의석을 보장하는 선에서 매듭이 지어졌다. 이에 대해서 각 정당에서는 반대가 많았다. 특히 PKI는 교도민주주의 지지를 하면서도 군부의 의회 진출에는 적극 반대하였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1959년 2월 19일 45년 헌법(UUD-45)에 기초를 둔 교도민주주의 실시 구상에 대한 내각의 결정과 2월 21일자 대통령의 45년 헌법 복귀 결정은 마침내 국민평의회의 표결에 부쳐졌다. 그러나 내각과 수카르노의 구상은 세 차례의 표결에도 불구하고 2/3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Legge, 1972:303-304). 수카르노 대통령은 이에 45년 헌법으로 복귀할 결심을 굳히고, 1959년 7월 5일 대통령령을 발동하여 45년 헌법으로의 복귀를 발표하였다(Legge, 1972:306).

수카르노 대통령의 45년 헌법으로의 복귀 선언으로 1950년의 인도네시아연방공화국 헌법(UUDS-50)은 무효화되었고, 대통령에게 비상대권 등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었으며 군부는 45년 헌법 제 2조 1항에 명시된 직능그룹의 일부분으로서 합헌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교도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한 수카르노는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고 각료의 1/4을 군부에서 임명하였는데, 나수티온 장군은 혼역으로서 국방장관에 임명되었다. 수카르노는 강력한 민중 기반을 가지고 있던 PKI와 실질적인 통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군부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자신의 권력기반 강화를 시도하였다. 1961년에는 정당 간소화 정책의 일환으로 PRRI 사건에 연루되었던 마슈미당과 PSII를 제거하고, PNI를 비롯한 4개의 민족주의 정당과 이슬람교육운동당을 비롯한 5개의 이슬람계 정당 그리고 PKI만을 인정하여, 이른바 민족주의자, 종교 집단(이슬람) 및 공산주의자의 삼각 연합인 나사콤 체제를 구축하였다(Brackman, 1969:44).

나사콤 체제의 형성은 대통령과 군부에 의해 공유되어오던 정치권력이 PKI의 부각과 함께 삼분화되는 것을 의미했으며, 이 체제는 교도민주주의 시기를 통해서 권력구조의 핵심을 이루었다. 1957년 비상사태 선포에 따른 계엄령으로 군부는 정치적 지위를 확고하게 차지하였으며, 이어 1959년 교도민주주의의 채택으로 정치적 지위를 제도적으로 보장받았다. 이때 군부는 내각과 의회에서 각각 1/3의 지분(할당)을 획득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보장에 대한 반대급부로, 군부는 PKI의 정치참여를 용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Crouch, 1986: 35-37).

수카르노는 물리적인 강력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 군부의 대항세력으로서 PKI를 이용해야 했기 때문에 1953년 3월 공산당원인 국민협의회 부의장 아이딧(Aidit)과 국회 부의장인 루크만(Lukman)을 각기 부의장 직위를 가진 채 각료로 입각시켰다. 수카르노의 급격한 좌경화와 더불어 1963년에는 나사콤 체제 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여 PNI, 무르바당, NU 등 민족주의 세력과 종교 세력 정당 사이에 반공적인 색채가 표면화되었다. 같은 해 6월부터 이를 정당이 반공운동에 가담함으로써 나사콤 체제 내의 10개 정당 사이에 불화가 가중되었다. 이러한 불화 속에 수카르노는 다시 공산당원인 뇌또(Njoto)를 입각시켜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기 못했다(Palmier, 1973:230). 계속해서 수카르노는 1965년 7월과 8월 사이에 하르디(Hardi) 등 PNI의 우파 간부를 낭과 정부에서 추방하고 9

월에는 무르바(Murba)당을 해산시켰다. 이로써 나사콤 체제는 균형을 잃고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했다.

수카르노의 비호 하에 급성장한 PKI는 1965년 1월부터 1,500만의 농민과 노동자를 무장시켜 제 5군을 창설할 것을 계창하면서, 모든 인민은 45년 헌법에 의해 국방에 참여 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해공군과 경찰군 등 4군 체제의 군부와 인민의 군대(제 5군)와의 유대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군부를 자극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인도네시아 경제는 최악의 상태에 이르러 미국 달러에 대한 공식 환율이 45루피아에서 20,000루피아까지 상승하고, 쌀 값이 2-3개월 사이에 5배로 상승하는 등 엄청난 인플레이션 현상이 야기되었다. 자바의 여러 도시에서는 쌀 소동이 일어나고 PKI에 의해서 조종된 조직적인 테모가 연일 일어나는 등 심각한 사회불안 속에서 1965년 8월 4일 수카르노가 공식적인 행사 도중에 졸도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수카르노는 곧 의식을 회복했으나 이 사건은 사회 각층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특히 PKI는 대통령 사후 군부의 보복 조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다. 더욱이 군부가 이미 장군평의회를 중심으로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과 함께 10월 5일을 기하여 모종의 중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어서 PKI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정치적 불안의 혼란 속에서 1965년 9월 30일과 10월 1일 새벽사이에 9·30사태로 불리우는 무력 소요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의 발단은 현재의 나사콤 체제보다 훨씬 발전적이며 공산주의가 광범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정치체제를 구상하고 있던 PKI에 의해서 야기되었다. 그러나 9·30 사태는 수하르토에 의해 단 하루만에 완전 진압되었다. PKI는 쿠데타 실패 직후 9·30 사태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수하르토가 아니 장군 등 6명의 반공 장성의 시체를 할림(Halim) 공군기지에서 발견하고, 이곳에서 PKI 청년당원 등 좌파 군사단체가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관련성이 없다는 PKI의 주장은 허구임이 드러나게 되었다(Brackman, 1969: 84-95). 또한 수하르토는 이 참살 현장을 매스콤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선전하여 모든 국민과 군부의 PKI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였다. 때마침 정치적 재기를 기다리던 우익 정치가들과 PKI의 드세로 위축되었던 종교 정당과 민족주의 정당 그리고 우익 학생단체 등이 반(反)PKI운동에 전국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군부는 이러한 외부 세력의 후원으로 가장 강력한 적이었던 PKI를 제거하는 동시에 수카르노 대통령이 9·30 사태와 연루되었음을 국민에게 홍보하였다. 군부는 무력으로 대통령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요구에 의하여 PKI를 말살시키고 그 다음 순서로 수카르노를 제거하는 연동작전을 자연스럽게 전개해 나갔다.

1965년에 발발한 9·30 사태는 다양성으로 특징지워지는 인도네시아 사회를 크게 변모시켰다. 나사콤 체제가 붕괴되고 수카르노가 축출되었으며, PKI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던 이슬람 세력과 군부가 많은 민중을 동원하여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에 나섰다. 9·30 사태 이후 수하르토가 대통령 대행(1967.3.11)이라는 과도적 절차를 거쳐 국민협의회(MPR)를 통해 정식 대통령으로 선출(1968.3.27)되는 짧은 동안에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주된 세력으로 이슬람과 군부가 전면에 등장하였다. 이슬람은 구질서(Orde

Lama) 시대에 수카르노의 민족주의 세력과 PKI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자신들의 이익과 사회적·정치적 역할이 크게 침해당했다고 생각해왔으며, 군부 중 특히 육군은 민족주의 운동기와 의회민주주의 시기 동안에 공화국 정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도민주주의 시기에 PKI를 편애한 수카르노로부터 모욕적인 대우를 받아왔다고 분노해 왔었다.

신질서(Orde Baru) 시대의 도래로 표현하고 등장한 수하르토는 집권 직후부터 국가 경제개발에 국가정책의 최우선적인 배려를 하였다. 군부 세력은 자신들의 득세가 이슬람 세력의 강력한 지원에 의해서 단시일 내에 용이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민족주의운동 기에 군부의 적대세력으로서 이슬람국기를 지향했던 성통이슬람 세력의 잠재적인 혁명 가능성과 9·30 사태 이후에 PKI 소탕에 앞장섰던 이들의 군중동원능력을 두려워하여 신질서 시대의 초기부터 이들에 대한 강력한 통제와 와해공작으로 일관하였다. 군부가 주도한 신질서 시대에서는 빤짜실라라는 이념 하에 모든 국가조직과 사회단체와 종교 세력을 정부통제 하에 두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로써 9·30 사태 이후 군부의 지속적인 성장에 반비례하여 이슬람 세력은 점차로 약화되고 분열되어 수하르토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 온 빤짜실라 체제의 한 부분으로 흡수되어 갔다.

인도네시아 군부는 인도네시아의 독립과 함께 국민군이나 국군으로 탄생되지 못하였다. 공화국 정부군의 이름으로 수카르노와 핫타가 이끄는 공화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연방을 결성하여 과거 식민지 종주국으로서의 기득권을 되살리려는 화란 세력, 그리고 반화란·반공화국을 내세우는 정통이슬람 무장세력들의 상호 세력경쟁과 반목과 갈등의 구도속에서 공화국 정부 편에 서서 고군분투하였다. 그러나 화란 세력이 물러나고 반정부 무장이슬람세력들을 소탕해 나가면서 인도네시아국군은 면모를 갖추어 나가기 시작하였다. 교도민주주의 시대를 이끈 수카르노와 군부의 종주세력인 육군은 원만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수카르노와의 불편한 관계가 육군의 지도부를 단결케 하였으므로 이슬람 세력의 약화와는 상반되게 이들은 점차로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해 나올 수 있었다. 이로써 군부는 신질서 시대의 주도세력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 2. 신질서 체제하의 이슬람의 정치참여

### (1) 골카르(Golkar)의 등장과 제 2차 총선거

수하르토는 집권 직후부터 국가 경제개발에 힘썼다. 과감하고 광범위한 외자도입정책을 채택하여 자원과 인력이라는 국내적 요인과의 조화에 노력하였다. 이와 더불어 비동맹 중립노선을 내세우면서도 친서방정책을 추구하여 수카르노 시대의 대외채무를 연기하거나 조정하였다. 국론 분열의 방지와 경제우선정책을 구실로하여 정쟁의 제반요소를 엄격하게 제한하였다. 이슬람의 정치적 표현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극히 제한되어 이슬람 세력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는 사실상 차단되었다. 이들 이슬람 세력들은 군부를 도와 구질서체제를 무너뜨렸으므로 당연한 대가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었으나, 군부세력은

독립운동기와 혁명기를 거쳐 교도민주주의 시기에 이르는 동안 익숙하게 경험하였던 이슬람의 정치적 잠재력을 크게 우려하여 신질서기 초기부터 주도면밀한 계획 하에 이들의 입지를 점차로 축소해 나갔다. 이로써 구질서기에 정치의 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이슬람은 점차로 영향력을 잃게 되어 정치참여의 기회가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9·30 사태로 인한 공산당 재기는 이슬람집단들, 학생조직, 군부의 협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슬람은 새롭게 정치적·사회적으로 양호한 입지를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국빈대중은 많은 이슬람지도자들을 가장 중요한 정치세력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이슬람의 주요 적대세력이었던 PKI와 수카르노가 세거되고 수백만의 공산주의 지지자들이 몰락함으로써 이슬람정당은 신질서 초기에 가장 큰 정치세력으로 부각되었다(Samson et al., 1985: 165). 어느 체제에도 잘 적응할 수 있고 융통성있는 NU는 수하르토의 호감을 사 할리드(Idham Chalid), 나흘람(K.H.M.Dahlam) 등 당의 고위 지도자들이 장관직에 임명되었고, PSII와 Pertie에게는 PKI와의 제휴로 상실한 사회적·정치적 입지와 조직내부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주어졌다.

한편 구(舊)마슈미의 복권투쟁을 위한 위위원회가 결성되어 다양한 조직들을 통해서 정치의 장에 참여하기 위한 정당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전력하였다. 마슈미의 지지자들은 1965년 12월에 협력체(Badan Koordinasi Amal Muslimin)를 구성하고, 1968년 2월에는 신질서 정부의 허가를 얻어 16개 조직으로 마슈미의 후신을 결성하였다. 이로써 수카르노에 의해서 불법화되었던 마슈미당은 수하르토 정권에 의해서 인도네시아무슬림당(Parmusi: Partai Muslimin Indonesia)으로 재출범하게 되었다. 그러나 Parmusi의 지도부는 과거 마슈미의 군중동원능력과 정치적 잠재력을 두려워한 신질서 정부에 의해서 철저하게 지배당했다. 즉 로엠(M.Roem), 우스만(F.Usman), 프라워토(Prawoto Mungkusami) 등의 구(舊)마슈미 지도자들은 비록 1958년의 PRRI사건과 1957년의 빠르메스파(Peresta) 군부반란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Parmusi에의 가입을 거부당하였다. 비록 정부의 인가는 받았지만 마슈미 후신은 지도부 결성에서부터 모든 행동에 엄격한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온건한 아방안계 무슬림들과 대다수의 군부세력은 마슈미에 연계된 이슬람정당이 여전히 그들의 복표인 이슬람국가 건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집착하고 있다고 믿어 마슈미 세력과 군부의 협력은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1965년의 9·30사태 이후 NU는 막대한 재정적 협조와 더불어 군부를 후원하여 공산당 소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군부의 보답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PKI와 여타의 좌익조직이 붕괴된 이후 정계 잔류를 허락받았던 NU조차도 급격하게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하였다. 이는 수하르토의 통치조직으로 급조된 골카르(Golkar: Golongan Karya)를 통하여 직능그룹의 일원으로 군부가 정치의 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이었다.

1971년 7월에 실시된 인도네시아 제 2차 총선거는 의회민주주의기인 1955년의 자유롭고 개방된 선거와는 달리 Golkar에게 지극히 유리한 상황에서 실시되었다. 정부와 군부세력은 공개적이며 일방적으로 Golkar를 지원하였으며, 심지어 군소 정당에까지 군과 정부가 직·간접으로 압력을 가하였다. 투표결과는 <표 2>에서 보여지듯이 Golkar의 압

〈표 2〉 인도네시아 1971년 총선거 결과

정당별	득표수	득표율	의석수
직능그룹(Golkar)	34,348,673	62.80	236
인도네시아국민당(PNI)	3,793,266	6.94	
인도네시아기독교당(Parkindo)	733,359	1.34	
무르바당(Murba)	48,126	0.09	
인도네시아독립자지자협회(IPKI)*	388,403	0.62	
카톨릭당(PK)	603,740	1.10	
소계	5,516,894	10.09	30
나호다풀울라마(NU)	10,213,650	18.67	
인도네시아무슬림당(Parmusi)	2,930,746	5.35	
인도네시아이슬람연합당(PSII)	1,308,237	2.39	
이슬람교육운동연합(Perti)*	381,309	0.70	
소계	14,833,942	27.11	94
총계	54,699,509	100.00	360

주: IPKI: Ikatan Pergerakan Kemerdekaan Indonesia

Perti: Pergerakan Tarbiyah Islamiyah

자료: Kompas, 22 Juli 1971에서 재구성.

도적인 승리로 나타났다.

62.8퍼센트의 지지로 총 360석이 되는 직접선거에 의한 DPR 의석 중 236석을 획득한 Golkar에 비해서 PNI는 6.94퍼센트에 머물렀고, 이슬람정당들은 NU가 18.67퍼센트, Parmusi가 5.35퍼센트, PSII가 2.39퍼센트, Perti가 0.70퍼센트로 총 27.11퍼센트의 득표율을 94석을 얻는데 머무르고 말았다. 이슬람정당을 비롯한 PNI에 대한 지지를 저조는 선거운동과 선거이슈에 군부의 엄격한 사전규제가 가해졌기 때문이었다. 정보기관들은 후보자를 감시·감금하였고 지방군과 경찰관들은 이들에게 협박을 가하기도 하였다. 수하로토 정부에 의해 새로 도입된 선거법에 의해서 모든 후보들은 군정보기관에 의해서 사전에 면밀한 조사를 받게 되어 많은 후보들이 탈락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약 75퍼센트의 후보들이 군부의 사전 조치로 출마 자체를 거부당했다(Liem, 1988:883). 후보자 개인에 대한 통제 이외에도 이슬람공동체와 이슬람종교를 상징하는 표현범위를 대폭 규제했다. 이와 함께 1960년대 말과 70년대 초에 이르는 시기에 비교적 비판적 자세를 취했던 언론도 강력한 정부의 통제로 무력화되어 정부시책에 대한 비판기능을 상실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하여진 제 2차 총선거에서 이슬람계 정당의 득표율이 1955년의 44.05퍼센트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 (2) 3당체제하의 제 3차·제 4차 총선거

이슬람계 정당의 득표율은 1971년의 경우보다 1977년 5월과 1982년 5월의 제 3차와 4차 총선거에서 다소 증가되었으나 그리 큰 폭은 아니었다. 제 2차 총선거에 참여하였던 4개의 이슬람계 정당과 5개의 비이슬람계 정당은 1973년 수하르토의 정당합병 촉구에 의해서 2개의 연립정당으로 변모하였다. NU, Parmusi, PSII, Perti 등 이슬람계 정당들은 통일개발당(PPP: Partai Persatuan Pembangunan)으로, PNI와 기독교 및 카톨릭 정당들은 인도네시아민주당(PDI: Partai Demokrasi Indonesia)의 깃발 아래 통폐합되었다.

인도네시아 정당들의 3당체제로의 전환은 모든 정당을 정부의 강력한 통제 아래 두려는 군사정부의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슬람계 정당은 통일개발당으로 통폐합되어 당명에서부터 이슬람의 색깔이 제거되었으며, 민족주의 정당으로 명맥을 유지해온 PNI도 인도네시아민주당으로 통폐합됨으로써 민족지도자 수카르노의 후광이 차단되었다. 3당체제로 개편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1977년 선거에서 이슬람계의 통일개발당(PPP)은 샤카르타 정부의 당초 기대와는 다소 다르게 득표율 29.29퍼센트의 득표율로 총 360 의석 중 99석을 차지하여 2차 총선거에서 4개 이슬람 정당이 개별적으로 획득한 94석에서 5석을 증가시켰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비록 1982년의 경우에는 득표율 27.78

&lt;표 3&gt; 인도네시아 1977년 및 1982년 총선거 결과

정당별	1977년			1982년		
	득표수	득표율	의석수	득표수	득표율	의석수
직능그룹 (Golkar)	39,750,096	62.11	232	48,334,724	64.34	246
인도네시아 민주당(PDI)	5,504,751	8.60	29	5,919,702	7.88	24
통일개발당 (PPP)	18,743,491	29.29	99	20,871,880	27.78	94
총계	63,998,338	100.00	360	75,126,308	100.00	364*

주: 1971년 1977년과 달리 1982년 총선거에서는 364명을 국민직선으로 선출하고 96명의 의원을 임명하였다 (제2, 제3차 총선거에서는 360명의 의원을 선출하고 100명을 임명한 바 있음).

자료: 1977년 통계는 Sinar Harapan, 30 Mei 1982에서 재구성

퍼센트와 94석 획득으로 1971년 수준으로 지지율이 다시 감소하였으나 3당체제로 전환된 후 처음으로 실시한 1977년 선거는 분명히 군사정부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1977년 선거에서 PPP는 전체적으로 의석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수도 샤카르타에서 Golkar의 지지율을 상회하는 성과를 올렸다. Golkar의 득표율 39.3퍼센트에 비하여 PPP는 43.5퍼센트를 기록하였던 것이다.

샤카르타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PPP가 이슬람계 정당으로 자생력을 가지고 있음을

간파한 군부 지도자들은 본격적으로 PPP의 와해와 내부분열공작에 착수하게 되었다. PPP가 부분적이나마 Golkar의 경쟁대상이 될 정도로 강화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슬람계 정당의 특별한 결속이나 획기적인 변화에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카르타 정부의 실정과 비이슬람적인 이슬람정책에 기인한 것이었다. 정부의 실정으로는 무분별한 외자 도입으로 인해 부정부패가 난무하고 극심한 빈부의 격차, 실업, 법률 적용에 있어서의 불평등이 비무슬림 청년층을 자극하여 정부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표출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낫시르(Natsir)와 싱오디메요(Singodimejo) 같은 윈로급 이슬람지도자가 1977년 선거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한 것도 PPP의 득표율에 다소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상당수의 이슬람지도자들은 1971년 선거에 제이슬람 정당의 분열상과 Golkar의 독주로 대체로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었다.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카르타 정부가 추진해 온 탈이슬람화 정책 또한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에게 피해의식을 불러 일으켰고, 이에 대한 반응이 양대 선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1973년에 정부가 새로이 도입한 혼인법이었는데, 이는 무슬림들의 결혼원칙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었다(Noer, 1983:196). 정부의 조처는 무슬림들에게는 일상생활에서 조차 이슬람의 역할을 축소시키려는 의도로 보여졌으므로 PPP는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였다(Suryadinata, 1982:30). 뿐만 아니라 자카르타 정부는 1969년 이래 성지순례(Haji) 사업을 독점해왔다. 과다한 비용이나 신통치 않은 서비스에도 문제가 있었으나, 중요한 것은 하지에 나서는 무슬림들에 대한 차별대우였다. 기독교나 카톨릭신자들이 로마 등지의 성지순례를 하는 데는 일반여권을 사용하게 하고, 무슬림들에게는 특수여권을 요구하여 여행사와 항공편도 제한하였다. 정부가 하지정책을 독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무슬림들에게는, 국내외에서 무슬림들이 정부에 대해서 해로운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비쳐졌다(Noer, 1983:195). 간과할 수 없는 탈이슬람화 정책의 하나로 꺼바띤안(Kebatinan)으로 알려진 변형된 이슬람 예식을 정책적으로 이슬람 의식으로 일반화하려고 했다는 점도 들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이 끄리야이거나 끄리야이 고젤 출신인 수하르토 신질서 지도자들이 이슬람의 정치적 성향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아방안 계층의 특권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취해진 것이었다(Hassan, 1980:143-146). 이로 인해 꺼바띤안의 신비주의적 예식과는 차이가 있는 이슬람 의식의 절대적인 응호자인 올라마들의 극심한 반발을 야기하기도 했었다.

1977년과 1982년 총선거는 신질서 정부의 탈이슬람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정당들이 정치적 이익 제고에 비록 기여를 하지는 못했지만 이슬람 세력의 결집 가능성이 상존함을 나타낸 선거였다고 볼 수 있다.

### (3) PPP체제의 붕괴와 제 5차 총선거

1987년 4월의 총선거에서 이슬람계 정당은 선거사상 최악의 결과인 15.97퍼센트 득표에 머무르고 말았다. 1977년과 1982년 총선거는 인도네시아 이슬람이 교도민주주의 시

기의 약세를 크게 만회하지는 못하였으나, 이슬람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예상 밖으로 이슬람세력이 나타낸 저력은 빤히 실라 정부를 당황하게 했고, 이에 따라 보다 강력한 탈이슬람정책과 교묘한 이슬람세력 왜해공작이 뒤따랐다. 이로써 PPP는 1987년 제 5차 총선거에서 사상 유례가 없는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하는 결과를 맞았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1987년 선거에서 PPP는 총 85,809,816의 유효

<표 4> 인도네시아 1987년 총선거 결과

정당별	득표수	득표율	의석수	전회 대비 득표증감율
직능: 롬(Golkar)	62,783,680	73.16	299	8.82% 증가
인도네시아민주당(PDI)	9,324,708	10.87	40	2.99% 증가
동일개발당(PPP)	13,701,428	15.97	61	11.81% 감소
총계	85,809,816	100.00	400	

자료: Sudibjo,(1987:146)에서 재구성.

투표 중 13,701,428표를 얻어 15.97퍼센트의 득표율을 기록하여 총 400석 중 61석 획득에 그침으로써 전회 총선거 대비 11.81퍼센트의 하락세를 나타내었다(Mulkhan, 1989: 131). 그것은 주로 가장 강력한 지지기반을 지닌 NU가 PPP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초래되었다. 자카르타 정부는 정치적 이슬람세력의 탈정치화를 목적으로 PPP의 최대 연립 정당인 NU의 내분을 조장하였다. 이러한 정책에는 군사정부의 물질적 지원에 편승하여 군정보기관과 밀접한 연계를 맺고 자카르타 정부에 철저히 협력한 나로(J. Naro)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는 1970년대 말까지 수하르토의 오른팔 역할을 한 알리 무르포(Ali Murtopo)장군이 설립한 특수작전팀(Opsus)을 위해 정부의 명령을 받아 Parmusi의 내부분열을 확책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1982년 선거 후보자 명단도 NU 지도자들의 자문을 구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작성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1982년 선거 직후 NU는 파벌주의에 휘말렸다. 1960년대부터 NU를 이끌어온 원로급 정치가인 총재 할리드(Idham Chalid)의 파벌은 연합체내에서의 정치적 역할을 계속 보유하기 위해 싸웠다. 다른 파벌은 와히드(Abdurrahman Wahid)가 이끄는 계열로 PPP에서 탈퇴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들도 철회했다.

NU가 탈퇴한 PPP의 제 5차 총선거의 참여는 1982년의 27.78퍼센트에서 15.97퍼센트로 11.81퍼센트의 하락으로 나타났듯이 이슬람계 정당에 대한 국민적인 외면이 역력히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총 27개 주(州 : Propinsi) 중에서 티모르(Timtim)와 동부 누사땅가라(NTT)에서만 약소한 증가가 있었을 뿐 여타의 25개 주에서는 득표율이 모두 대폭 하락하였다. 1982년의 총선거에 비교하여 40퍼센트 이상 하락한 주가 10개 주에 달했으며, 이슬람 세가 가장 강한 아체(Aceh)주에서조차 27.28퍼센트가 감소하였다.

나로는 정부의 전적인 지원하에 1984년 8월에 PPP의 전국 회의인 뮝따마르(Muktamar)를 조작하는 데 성공하였다. 수하르토 대통령과 우마르(Umar Wirahadikusumah) 부통령이 뮝따마르에 참석했으며, 전국에서 온 2,500명의 대의원은 아무런 반대없이 회의가 속행될 수 있도록 나로에 의해 세심하게 선정된 사람들이었다. 주요 결정 중의 하나는 당의 이데올로기로 뺨짜실라를 수용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이제까지 PPP의 상징이었던 카아바(Ka'abah)가 뺨짜실라 정부 상징인 가루다(Garuda)에 포함되어 알라(Allah)가 아닌 ‘최고신’에 대한 신앙을 상징하는 황금빛 별로 대체되었다.

탈이슬람화의 보다 구체적인 조처는 샤크아르타 정부가 모든 정당으로 하여금 뺨짜실라(Pancasila)를 수용하도록 법제화한 것이었다. 조직(organisasi)과 사회(masyarakat)의 두 문자를 따서 ‘오르마스(Ormas)’로 명명한 이 법안에 따르면, 모든 정당은 뺨짜실라를 유일한 기본이념으로 하여야 하고, 당의 상징은 모두 뺨짜실라를 내용을 담은 것으로 한정하며, 여타의 모든 사회단체도 뺨짜실라를 유일한 기본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PPP는 당의 상징으로 이슬람교가 창시될 때부터 성지 메카에 소재한 것으로 알려져 무슬림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카아바를 사용해 왔으나, 오르마스에 의해서 카아바를 포기하고 뺨짜실라를 나타내는 인도네시아 국장에 포함된 ‘황금빛 별’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82년 8월 16일 국회개회사에서 수하르토 대통령은 “모든 사회와 정치세력들, 특히 뺨짜실라 이외에 다른원리들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정당들은 유일한 이념으로 뺨짜실라를 수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뺨짜실라의 법제화는 1985년에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Golkar는 물론이고 PPP와 PDI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로써 이슬람세력들이 주장하는 국가이념은 뺨짜실라 체제 아래로 수용된 셈이 되었다.

### 3. 뺨짜실라 체제하의 제 6차 총선거

#### (1) 골카르(GolKar)의 퇴조와 민주당(PDI)의 부각

인도네시아의 1992년 총선거는 과거의 어느 선거보다 치열하였다. 집권당인 골카르가 67.98퍼센트를 득표하였는데, 이는 1987년 5차 총선거의 득표율 73.16퍼센트와 비교하면 5.18퍼센트가 하락한 것이다. 이로써 의석도 299석에서 282석으로 17석이나 감소하였다. 이에 대해서 통일개발당(PPP)은 17.05퍼센트의 득표로 전회대비 1.08퍼센트의 득표율 증가로 61석에서 62석으로 당제의 현상유지에 머물렀으나, 민주당(PDI)은 1987년의 10.87퍼센트의 득표율에서 4.10퍼센트가 신장된 14.97퍼센트로 40석에서 56석으로 의석을 크게 증가시키면서 인도네시아 정국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주었다.

선거결과를 분석하면, PPP는 1석 증가로 1987년의 결과를 그대로 유지하여 1987년 이전 선거처럼 90석 이상 얻기를 희망한 당 지도부를 실망시켰다. 골카르는 1987년 이전의 230석 보다는 많지만 1987년에 비해 5.18퍼센트의 지지율 하락과 17개의 의석을 잃었는데, 골카르의 상실은 대부분 PDI의 승리로 이어졌다. 1992-1997년 회기에 16석을

〈표 5〉 인도네시아 1992년 총선거 결과

정당별	득표수	득표율	의석수	전회대비 득표증감율
Golkar	66,137,107	67.98	282	5.18% 감소
PDI	14,559,667	14.97	56	4.10% 증가
PPP	16,591,847	17.05	62	1.08% 증가
총계	97,288,621	100.00	400	

자료: Merdeka, 13 Juni 1992에서 새구성.

증가시킨 PDI는 1982-1987년에 비해 의석이 2배 이상 증가된 셈이다.

PPP의 1석 추가는 자바에서 7석이 증가하고 수마트라에서 6석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나. 수마트라의 8개 주(Propinsi) 중 6개 주에서 1석씩 상실한 것을 의미한다. 6개 주 중에서 잠비(Jambi), 병끌루(Bengkulu) 그리고 람.PREFERRED(Lampung)에서는 유일한 의석을 잃었나. 따라서 PPP는 1987-1992년에는 전국 27개주 중 21개주에 대표를 가지고 있었으나, 1992-1997년에는 단지 18개 주에서만 국회의원을 보유하게 되었다. 자바에서의 7석 증가의 내용은 중부 자바와 동부 자바에서 각각 3석 증가, 서부 자바에서의 1석 증가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NU의 동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바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NU의 세력은 강하다. 따라서 1992년 자바에서 PPP의 승리는 1987년에 잃었던 NU 영향력의 회복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King, 1992:167).

수마트라에서의 패배는 전 지역에 걸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다. 1992년 선거에서 PPP는 2개 주에서 의석을 유지하였으나 지지율은 현저하게 하락했다. 리아우(Riau)에서는 득표율이 1987년의 15퍼센트에서 14.3퍼센트로, 남부 수마트라(Sumatra Selatan)에서는 더욱 심하여 18.8퍼센트에서 11.9퍼센트로 각각 감소했다. 전통적으로 이슬람지역으로 알려진 수마트라에서의 PPP의 패배는 NU의 정치포기와 빤짜실라 이데올로기의 수용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이러한 두요인은 PPP가 이슬람을 대표하는 유일한 정당이라는 색채를 퇴색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동시에 골카르와 PDI가 성공적으로 이슬람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빌미를 제공했고 그 결과가 명백하게 나타난 셈이다.

1987년 골카르에 투표했던 많은 NU유권자들이 1992년 6월 총선에서 다시 PPP로 돌아왔지만, 이는 PPP가 이슬람의 정통성을 회복했다는 증거가 아니다. PPP에 대한 재신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골카르에 대한 실망 때문일 것이다. PPP는 제6차 총선거를 통하여 이슬람의 정통성을 되찾거나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실패하였다. 이슬람 색채가 강한 수마트라에서 PPP의 패배는 1987년 총선 결과로부터 근본적으로 어떤 발전도 없었음을 의미한다. 아체(Aceh)에서 PPP의 의석(1석)이 골카르로 넘어갔다는 사실은 당 지도부를 당혹하게 만들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PDI에게 제2당의 위치를 내줄 것이라는 관측통들의 한결같은 견해에도 불구하고, 〈표 6〉 수치가 나타내듯이 PPP가 기존의 득표율을 상회한 것은 인도네시아 이슬람사회의 저력을 확인한 것이라는 조

〈표 6〉 역대 총선거별 이슬람계 정당 득표현황

연도	총 투표수	이슬람계 정당		전회 대비 득표율 증감
		득표수	득표율(%)	
1955	37,785,299	16,642,924	44.05	
1971	54,699,509	14,833,942	27.11	16.94% 감소
1977	63,998,338	18,743,491	29.29	2.18% 증가
1982	75,126,308	20,871,880	27.78	1.51% 감소
1987	85,809,816	13,701,428	15.97	11.81% 감소
1992	97,288,621	16,591,847	17.05	1.08% 증가

자료: Merdeka, 13 Juni 1992에서 재구성.

심스러운 견해도 있다.

1992년 총선에서 PDI의 득표는 전국적으로 고르게 향상되었다. 의석수도 자카르타를 제외하고 전지역에서 고루 증가하였다. PDI는 세 정당 중 가장 강력하게 부정선거를 고발하고 항의하였는데, 새로 추가된 16석 중 8석을 자바(특히 중부자바와 동부자바)에서 얻고 전통적으로 여당세가 강한 발리(Bali)와 이슬람세가 강한 북부 수마트라에서도 각각 1석을 얻었다. 따라서 1992~1997년 회기 동안 PDI는 27개주 중에서 20개주의 대표를 가지게 된 것이다. 특히 티모로에서 PDI는 처음으로 골카르의 정치적 독점을 깨뜨렸는데, 이것은 1991년 11월에 있었던 인도네시아 험병 반대 데모대에 대한 금찍한 진압의 악몽이 되살아 난 때문이다. 반면 1992년 6월 총선에서 PDI의 상처는 자카르타에서의 패배였다. 이 패배는 국회에서의 1석을 상실하는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PPP에도 밀리면서 약 10만표 차이로 3위에 그치는 굴욕을 맛보았다. 타락선거를 자행하는 PPP와 골카르를 이길 것이라는 PDI 지도부의 예상은 놀랍게도 빗나갔다. PDI의 거친 선진전이 자카르타 시민들의 눈에는 때때로 야만적으로 보였으며, 이로 인해서 비판적이고 정치적으로 세련된 도시 유권자들의 지지를 잃게 된 것이다.

집권당 골카르는 1987년의 5차 총선거와 1992년 6차 총선거에서 연속적으로 전국 27개 주에서 다수 의석을 얻었지만, PPP와 PDI가 승리한 자바와 동부 인도네시아의 여러 지역(중부자바 8석, 동부자바 10석, 동부칼리만탄 3석, 기타지역 6석)에서 의석이 감소되고, 전통적으로 PPP 강세지역인 수마트라에서 승리하였고(아체 1, 북부 수마트라 1, 잠비 1, 병풀루 1, 람评议 1), 동부 인도네시아의 3지역(남부 칼리만탄 3, 북부 술라웨시 1, 말루쿠 1)에서 의석을 추가하였다. 특히 이슬람의 아성인 아체에서의 승리로 골카르의 위상이 강화되었다. 골카르는 중부와 동부 자바에서 크게 패했는데 골카르의 의석은 PPP보다는 대체로 PDI에게 넘어갔다. 자바에서 골카르의 패배에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1979년에 제정된 지방정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는 시기와 관련이 있다. 이 법률은 중부와 동부자바에 활발히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관한 높은 인식도가 선거결과로 이어졌다. 서부 자바는 이 법률의 시행을 총선 후에 연기시켰는데, 그 이유는 중

부와 동부자바의 유력한 인사와 마을 촌장들이 대거 PDI에 참여했기 때문이었다.

골카르 패배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PDI의 선거운동이 3개 정당 중 유권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문제를 부각시켰다는 점과, PDI의 공격이 주로 집권당을 향한 것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PDI의 독과점 방지와 경제발전 과실의 공평분배, 정부지도자의 세대교체에 대한 요구는, 동부 자바의 정향(丁香)과 담배농장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결과적으로 수하르토의 아들 후또모(Hutomo Mandala Putera)가 시도한 정향 독점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같은 정향 농원지역인 북부 술라웨시와 말루쿠에서는 자금투자에 따른 개발심리가 작용하여 골카르가 각각 1석씩 추가했다.

전체적으로 1992년의 6·9 총선은 과거의 선거보다 치열했다. 경제적 번영, 증대되는 정치적 개방, 지도자의 교체 가능성은 두가지 현상을 만들어냈다. 그 첫째는 유권자들이 골카르를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는 점이며, 둘째는 비록 골카르를 대체할 가능성은 적지만 PPP와 PDI가 실질적인 승리를 얻을 기회를 맞이했다는 점이다(King, 1992:169).

## (2) 선거쟁점과 각 정당의 입장

### 1) 선거쟁점

인도네시아 빤짜실라 정부는 6·9 총선거를 통해서 골카르가 개발과 통치를 동시에 수행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선거이슈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려 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문제, 노동자들의 권익문제, 중앙정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지방 정부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문제들이 총선에서 주요 쟁점화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도 수하르도 대통령의 연임문제와 부통령 선임문제,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이 선거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지난 4년 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문제는 수하르토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것이었다. 수하르토는 1989년에 출판된 자서전을 통해서 1988~1993년의 임기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언명했었다. 그 후에도 수하르토는 자신의 고령에 대부분 초점을 맞추며 여러 차례 유사한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1993년 퇴임하고자 하는 자신의 생각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요청이 있다면” 새로운 임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여러 번 암시하였다. 1987년의 경우처럼 수하르토가 1993~1998년에 또 한 차례 연임하기를 원하는 공식적 지지표명이 여러 번 있어 왔다.

동부자바의 올라마들이 최초로 수하르토의 연임을 지지하고 나섰고, 뒤를 이어 PPP가 1993년에 수하르토의 출마를 지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골카르를 지지하는 몇몇 사회단체도 수하르토가 가장 선호되는 1993~1998년의 대통령 후보라고 발표했다. 6·9총선 1개월 전인 5월 10일에 대부분이 이슬람 조직과 PPP에 관련되어 있는 37개의 대소 사회단체가 1993년 수하르토의 6차 연임 출마를 촉구하는 ‘정치적 기도문(doa politik)’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골카르와 ABRI는 표면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견해 발표를 미루었다.

골카르에 대한 통치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집권여당인 골카르는 동요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서 골카르는 암묵적으로 수하르토 이외의 후보를 심각하게 고려하게 되었으나, 이와는 반대로 골카르의 산하조직들은 4월 30일 수하르토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수하르토를 대체할 수 있는 인물로는 제 5차 개발내각의 내무장관 루디니(Rudini)의 이름이 가장 널리 알려져 왔다. 루디니에 대한 거명은 PDI의 의장 수르야디(Soerjadi)가 그의 사적인 견해이며 당(PDI)의 공식적인 결정이 아니라고 말하였지만 궁극적으로도 언급되어 왔다. 수르야디의 언급은 PDI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기 위한 것이며 변화를 요구하는 적지 않은 유권자들을 대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1993년 대통령 승계와 관련된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는 부통령의 선택이었다. 부통령 선택은 수하르토의 6번째 연임을 가능하는 중요한 문제로 여겨졌다. 수하르토는 나이를 먹을수록 재임 중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 국가원수가 유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따라서 1993년 부통령의 선택은 군부에게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인물이어야 했다. 부통령의 선택은 수다르모노(Sudharmono)가 1988년에 부통령에 취임했을 때처럼 골카르와 ABRI간의 마찰을 재연시킬지도 모른다고 우려되었다.

PPP는 1992년 5월에 부통령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이미 표명했다. PPP는 PDI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통합군(ABRI)사령관인 트리(Try Sutrisno)장군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골카르와 ABRI는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부통령 후보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선거기간 동안에 부각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빈부격차의 심화였다. 이 문제는 지난 1986년과 1987년에 있었던 석유파동(가격 인상)이 논쟁거리로 등장하였고 골카르 정부의 통치능력 부재로 비화되었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1991년 발표에서 인도네시아의 복지상황이 전체적으로 향상되어 왔다고 했고, 자카르타정부는 이에 고무되어 앞으로도 빈부격차를 성공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발표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실제로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견해가 많은 저소득층에 의해서 널리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불만들이 1987년의 73.16 퍼센트 지지에서 1992년의 67.98 퍼센트로 골카르를 후퇴하게 했던 것이다. PDI는 과감하게 골카르의 지하경제 비대화의 방치를 주요 선거쟁점으로 부각시켰던 것이다.

## 2) 각 정당의 입장

골카르가 1987년의 제 5차 총선거에서 보여 준 강세는 군부의 정치개입 최소화라는 변화를 고려한다면 상당히 놀라운 것이었다. ABRI는 처음으로 골카르의 지원을 최소로 억제하고 총선거의 '주심'으로서 좀 더 중립적인 위치로 옮겨갔다. 따라서 군부는 골카르의 승리보다는 평화스러운 선거에 초점을 맞추었고, ABRI의 이러한 입장은 1992년 총선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카르는 막강한 집권당답게 1987년 선거에서 최대 목표치인 70퍼센트를 훨씬 상회하는 득표율을 올렸다. 골카르의 1992년 총선거의 기본전략은 자신이 인도네시아 경제성장의 감독자로서 미래지향적인 지속된

번영을 약속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임을 부각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골카르는 당의 역동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많은 신진후보들을 내세워 으로써 젊은 세대의 표를 흡수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러한 역동성과 경제안정의 조화는 이전의 총선기에서도 골카르에 의해 시도된 것이었다. 골카르는 공개적으로 76퍼센트의 득표율을 확신하면서 당의 역동성과 경제안정이라는 낡은 전략을 구사하였다.

제 2차 총선기(1971)부터 제 4차 총선기(1982)에 이르기까지 28-29 퍼센트의 안정적인 지지를 얻었던 PPP가 1987년에 15.97 퍼센트로 급격히 약화된 것은 세가지 요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는 1973년에 PPP와 통합했던 4개의 이슬람 정당 중 이슬람 사회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던 NU가 보편화되어가는 이슬람의 위상과 색깔을 강화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연례총회를 갖기로 결정했는데, 당시 PPP의 총재인 나로는 이러한 결정에 대응하고 자신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NU를 코너로 몰았다. 이러한 결정은 PPP의 노선에 다소의 혼란을 가져왔는데, 이로써 빠산뜨렌과 끼아이들의 막강한 지지를 받고 있던 NU와 자카르타 군사정부와 연계되어 PPP의 이슬람 색깔을 보편화하려는 나로의 지도노선 사이에 알력이 상존하게 되었다.

다음으로는 PPP가 1985년에 빤짜실라를 당의 기본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인 결정과도 관련된다. 제정일치와 신법통치국가의 이상을 가지고 있는 정통 무슬림들에게 빤짜실라의 수용으로 ‘카바(Ka'abah)’대신 빤짜실라 상징의 하나인 ‘황금빛 별(bintang emas)’을 이슬람당의 상징으로 변경, 채택한 것은 많은 PPP의 지지자들, 특히 정통주의자들에게 당 지도부의 탈선으로 받아들여졌다. 마지막으로 1977년 아래 당 총재인 나로의 인기없는 지도력이었다. 결국 NU는 ‘정치포기와 이슬람 회귀’를 선언하게 되었고, 제 5차 총선기에서 PPP에 대한 지지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PPP는 1992년 총선기에 대비하여 빤짜실라를 당의 이데올로기(강령)로 수용할 것을 기정 사실화하고, 5차 총선 참패 후 아제 출신의 정통 이슬람주의자인 메타레움(Ismail Hasan Metareum)을 새 총재로 뽑아 8명의 부총재와 함께 당의 지도부를 강화하였다. PPP가 제 6차 총선기를 통하여 총선의 28-29 퍼센트 득표율을 강력하게 회망했던 것은 당 지도부의 개편과 강화로 정치일선에서 물러나 NU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면서, 최소한 NU의 영향력 행사로 골카르로 갔던 이슬람 표가 다시 PPP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기 때문이었다. 이를 위해서 PPP는 두 갈래의 전략을 세웠다. 지방의 올라마 등 전통적인 이슬람 지도세력을 설득하는 것과 또 새로운 지지확보를 위해서 도시의 젊은이들을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자바에서 NU의 영향력을 득표로 이어졌으나, 전통적으로 PPP의 강세지역인 수마트라에서의 전반적인 퇴조는 유일한 이슬람 정당으로의 이미지 쇄신에는 실패하였음을 의미하였다.

제 5차 총선 이후 PDI의 회복은 1986년부터 당을 이끌어 온 수르야디총재에 의한 당내 결속에 기인한다. 당 지도부의 알력에도 불구하고 수르야디는 전임자가 결코 해내지 못했던 시(kotamadya)와 군(kabupaten) 단위 이하의 당조직을 체계화한 것이다.

시군 단위의 당 기구의 확장은 PDI가 1973년 아래 처음으로 지역수준의 선거운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3개의 인도네시아 정당 중 가장 작은 PDI는 선거 2년 전에 두 가지 변

화를 경험하였다. 하나는 당 지도부의 알력이 대체로 마무리되고 분쟁이 종식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PDI의 득표와 직결되는 골카르와 PPP의 지도자들을 설득하여 지식인, 전역군인, 젊은 행정가, 마을 지도자들의 잇단 탈퇴를 유도했다. 이를 중 많은 이들이 새롭게 PDI에 참여했는데 이는 PDI의 역동성과 참신성이 PPP와 골카르가 제시하지 못하는 정책개발과 강력한 정부비판으로 변화를 추구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된다. PDI의 새로운 모습 이외에도 구루 수카르노뿌뜨라(Guruh Soekarnoputra)가 선거에 참여하여 수카르노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와 PNI(국민당)로 이어지는 당의 뿌리를 회고하게 하였다. 이러한 가식적이고 대중적인 현상 이외에도 PDI는 1992년 총선에서의 득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바와 빌리에서 총력을 기울였었다.

### (3) 이슬람과 군부의 관계

#### 1) 조직화된 이슬람

1980년대 후반에 인도네시아 정치에 있어서 역사적인 사건은 신질서 정부에 대한 이슬람 조직의 관계의 변화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초기에 양자의 관계는 상호불신과 증오, 그리고 정부측의 회유와 압력으로 항상 긴장상태를 지속하였다. 80년대 중반 이후 양자의 관계는 크게 호전되었고 상호 협력의 형태로 발전되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1985년을 반전(反轉)의 해로 꼽는데, 이 때 신질서 정부는 모든 정당과 사회조직체로 하여금 국가이념인 빤짜실라를 유일한 이데올로기로 수용하게 하는 데 성공했던 것이다. 빤짜실라 이데올로기를 내세운 신질서 정부의 주된 목표는 이슬람 세력을 탈정치화하는 것이었다. 리들(R.William Liddle)은 신질서 정부가 정치와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이슬람 세력에 대해서 세가지 방법을 사용했다고 표현하였다. 즉, 물리적 강제력의 행사, 회유와 설득, 그리고 물질적인 선심제공을 통하여 이슬람의 탈정치화를 유도하였다. 물리적 강제력 사용의 사례로는 그 핵심에 정통 이슬람주의자들이 활약했던 1984년의 딴중 포리옥(Tanjung Priok) 소요와 아체(Acceh)에서의 중앙정부에 대한 반란에 대한 무력진압을 들 수 있다. 회유와 설득은 이슬람계 정당이 카바(Ka'abah) 대신 빤짜실라를 수용하는 대가로 이슬람 조직에 대해 물질적인 지원을 제공해 주는 것이었다. 신질서 정부는 이 방법들이 이슬람의 이익들을 고려한 정부의 세심하고 다양한 결정의 한 형태로 부각되도록 노력하였다. 신질서 정부는 또한 이슬람 조직에 골카르 활동과 관련하여 끼야이들에 의해 운영되는 빤산뜨렌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수하르토에 의해 1992년에 설립된 빤짜실라 무슬림 후원회(Yayasan Amal Bakti Muslim Pancasila)에서 이슬람 사원 건립 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슬람 세력에 대한 적극적인 유화정책은 군부로부터의 지지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수하르토 대통령이 이슬람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기 위한 신중한 노력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 2) 군부

군부의 지지에 관한 논의는 대통령의 장기집권과 분리될 수 없다. 인도네시아의 고위

장성 가운데 수하르토가 25년 이상 재임하면서 이루어 놓은 많은 공적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수하르토는 국가의 안정과 경제개발 그리고 특별히 군부의 전문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이에 대한 공로는 대체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수하르토가 고령(1993년에 72세)이라는 점과 그의 자녀들이 재계(財界)에서 급성장한 것에 대한 불만은 군부의 소수 엘리트들로 하여금 그의 6번째 연임에 대한 회의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러나 누가 수하르토를 대신할 것인가하는 까다로운 문제 때문에 군부는 표면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전역한 장성그룹 내에서 대통령의 6선 연임에 따른 장기집권 문제와 인도네시아 민주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는 않으나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의 핵심은 군부의 이중구조(Dwi Fungsi)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필연성에 기초하고 있다. 그들은 ABRI가 정치와 행정으로부터 손을 떼고 국가의 외부위협에 대한 국가안보와 방위력을 증강에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군부의 역할은 수하르토가 더 이상 인도네시아의 최고 지도자가 아닐 때에 명백해질 것이다.

길레르모 오도넬(Guillermo O'Donell)이나 슈미터(Philippe C. Schmitter) 같은 많은 현대 정치학자들은 민주주의는 항상 지배세력의 균열에 의해 진전된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인도네시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군부의 균열이 필연적이고(King, 1992:157), 이 균열을 이용하여 이슬람 세력이 9·30사태 직후처럼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거나 또는 균열된 군부의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이슬람 세력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군부와 이슬람의 새로운 관계가 설정될지도 모른다.

1988년 당시 군부에 의한 수다르모노 부통령 임명 반대는 수하르토에 대해서 무시되었고, 이로 인해서 군부는 사실상 국내문제에 대한 역할을 크게 축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정책입안에 관여하고 있던 공군 참모총장 테디 루스디(Teddy Rusdy)가 “군부의 이중기능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군부는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국민의 군대로서의 역할, 즉 국방 및 치안의 의무만을 강요받게 되었다. 이러한 국내적 분위기 속에서 치열한 찬반 논쟁 끝에 통과되었던 군인복무규정(Law on Soldiership)도 1951년에 7개의 조항으로 삡타 마르가(Sapta Marga)에 규정된 이후, 1988년의 법률에 의해서 “군부는 오직 인도네시아 각 주(州)의 방위와 국가 치안에만 전념해야한다”라는 범국민적인 기대와 희망이 표출되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분위기는 1988년 9월에 인도네시아 권부의 실질적인 상징이었던 치안진서회복 작전사령부, 즉 콤킴띠(Kopkamtib)를 해체하여 군부의 기능과 범위를 대폭 축소시켜가면서 민간인 관료의 참여를 유도하여 국가조정위원회(Bakorstanas)로 탈바꿈하게 했던 것이다.

## IV. 인도네시아 군부와 이슬람의 갈등

### 1. 군부의 대 이슬람 빤짜실라화 정책

#### (1) 대(對) 이슬람 빤짜실라화 정책의 배경

빤짜실라 정책을 추구해 나온 신질서 정부의 군부 지도자들은 이슬람의 정치세력화 추구와 정권지향적인 시도에 대해서 과민한 반응으로 일관해 나왔다. 이슬람에 대한 빤짜실라화 정책의 배경은 1920년대 이후의 민족주의 운동기와 형식적인 독립을 이룬 후 혁명기(1945-1949)를 통하여 공화국 정부 측에 선 군부와 반(反)화란·반(反)자카르타 정부 입장에 선 정통 이슬람 세력 간의 경쟁과 알력관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수카르노·핫타의 공화국정부 초창기부터 일련의 사건들이 인도네시아 군부와 조직화된 이슬람 세력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었다. 유명한 인도네시아 군부의 지도자들은 거의 모두 압도적으로 자바태생이고 대개 빤리야이 계층이나 빤리야이 끄愆 출신이었으며, 이들은 일찍부터 이슬람에 대한 깊은 불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혁명시기에 화란이 인도네시아 재통치시도의 일환으로 막 탄생한 공화국을 파괴하려고 했을 때 공화국 정부군과 반식민(反植民)·반화란의 이슬람 무장세력 사이의 충돌이 이들 두 세력의 적대감정을 계속 증대시켰다.

1945년 10월 창설된 정부군은 주로 일본식 훈련을 받은 군인들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에는 현(現)대통령 수하르토도 포함된다. 이 군대는 일본 점령기(1942-1945)에 빠따(Peta)라는 이름으로 모집되었다. 빤리야이 끄愆 출신들이 주류를 이룬 이들의 관점과 견해는 그들을 교육시킨 일본군과 흡사하였다. 일본은 그들의 식민통치 후반기에 인도네시아 이슬람 교도들도 모집하여 훈련을 시작했는데, 일본은 이들의 훈련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무장 이슬람교도는 ‘신(神)의 군대’라는 뜻을 가진 히즈불라(Hizbulah)로 불리워졌는데, 이들이 일본 패전 후 하나의 중요한 전투군의 하나로 성장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군의 대열에서 분리된 채 히즈불라는 화란에 대한 반식민투쟁에서 정규 공화군보다 더 좋은 성과를 올렸다. 서부 자바에서 히즈불라는 주력군이 되었으며, 모든 무장세력을 인도네시아군으로 편입시키려는 공화국 정부의 시도는 실패했다. 무장 이슬람세력은 쉽게 따라가지 않았으므로 자연히 두 무장세력 사이에 충돌이 일기 시작했다.

1947년 정규군이 화란과 체결한 렌빌(Renville) 협정에 따라 서부 자바에서 철수했으나 히즈불라군은 철수를 거부하고 뒤에 남아 계속해서 대(對) 화란 계릴라 항쟁을 계속하고 이슬람국가를 추구하며 다를 이슬람(Darul Islam)운동을 전개하였다. 1949년부터 이 운동을 이끈 실질적인 지도자인 까르또수위르요(Sukarmaji Marijan Kartosuwiryo)가 죽게 된 1962년까지 13년 동안 지속된 이 정통 이슬람 운동을 통해서 카르또수위르요와 그의 다를 이슬람 무장세력은 인도네시아 역사에서 반란군으로 평가되어 왔다. 심지어 오

늘날에도 카르또수위르요의 다를 이슬람 운동에 개입을 주장한다든지 동정하는 것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라는 혐의로 기소되는 데 이용된다.

인도네시아군과 이슬람 무장세력과의 충돌은 서부 자바에 국한되었던 것은 아니다. 중부 자바의 북부 해안을 따라서, 아제를 중심으로 한 북부 수마트라에서, 남부 칼리만탄과 남부 술라웨시에서 이슬람의 깃발을 든 다를 이슬람과 정규군과의 길고 참혹한 전투가 지속되었다. 10년도 넘게 지속된 내전을 통하여 정부군의 장교집단에서 이슬람의 호전성에 대한 증오와 이들에 대한 불신과 뿌리 깊은 반감이 형성되었고 이슬람 행동과 세력들은 반드시 철권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역사 교과서는 서부 자바출신 카르또수위르요나 서부 술라웨시 출신인 까하르 무자카르(Kahar Muzakkar) 같은 고위급 다를 이슬람 지도자들이 비록 화란에 대한 반식민 투쟁의 혁혁한 전과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을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흔히 쓰이는 애국자라는 뜻의 ‘파흘라완(pahlawan)’이라고 부르는 데 매우 인색하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존속하는 군부통치 체제의 하나인 인도네시아 정부는 적대세력들을 교묘하게 분리통치해 나왔다. 1965년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기 전에 인도네시아 군부의 주된 적대세력은 이미 극우익과 극좌익으로 정의되었는데, 극좌익은 1948년에 마디운 사건과 1965년에 9·30 사태를 주도했던 PKI이고 극우익은 정통이슬람 정치세력이었다. 인도네시아 군부는 1950년대 후반부터 다를 이슬람(Darul Islam)을 포함하여 지방에 본거지를 둔 이슬람운동을 하나씩 차례로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에 인도네시아 군부는 이슬람 무장세력을 타도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 지냈으며, 끊임없는 다를 이슬람의 출현은 단지 이슬람 야당에 대한 인도네시아 군부의 태도를 경직시키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다.

인도네시아 군부는 정치적 이슬람에 대해 동조하지 않거나 혹은 종종 그들의 무력투쟁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는 아방안(Abangan)계 자바출신 장교들이 지배해왔다. 1945년 세대(Angkatan '45)의 고위급 장교 중에서 정통 이슬람교도의 상대적 부족 현상은 몇 가지 요인에 원인이 있었다. 화란에 대한 독립운동은 주로 자바에서 일어났으며, 이러한 이유로 해서 장교의 대다수가 자바인들이었고 그리고 이를 대부분이 아방안계 뿐리야이 끄젤 출신이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1950년대에 자바출신 세력에 의해 진압된 반공화국정부·반화란 반란에 이슬람 장교들이 다수 연루되었고 이로 인해서 군부는 비(非)자바출신 이슬람 장교들을 많이 짚었던 것이다. 이것은 군부 고위층에 정통 이슬람교도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단지 소수로서 군부의 자바출신 아방안계 색깔을 변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하르토 정부의 이슬람에 대한 전략은 정치적 이슬람의 비정치화를 목표로 해 나왔다. 신질서 초기에 이 전략은 구이슬람지도자들이 1945년 자카르타 헌장을 근거로 하여 ‘이슬람국가’를 표방하는 강경노선의 마슈미를 재건하려는 시도를 견제하면서 동시에 NU 내에 온진한 세력을 심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비록 신당 Parmusi가 마슈미의 후신으로 1968년에 설립허가를 받았지만, 수카르노와 그의 자바계 측근들과 마찬가지로 수하르토와 그의 자바계 장군들은 NU가 산뜨리 계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으

로 자바계이고 보다 더 순종적이며 융통성이 있는 NU와 관계를 맺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정부는 또한 Parmusi가 구 마슈미의 지도자들에게 기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친서방 수하르토 정권은 수카르노 친공(親共)정부가 취한 것보다 훨씬 강력한 대 이슬람정책을 추진하여 이슬람 세력의 정치적·사회적 역할을 규제하여 종교의 정치적 역할을 변화시켰다(Mcrey, 1984: 199). 이 과정에서 정치적 이슬람세력으로 간주되어온 이슬람 급진세력과 군부 지도자들 사이에 심각한 적대감과 충돌 가능성이 상존(常存)하게 되었다.

인도네시아 전통 이슬람 조직에 소속된 무슬림들은 부단하게 국가권력에 보다 가까이 접근할 것을 주장하였다(Liem, 1984:869). 그러나 정치적 이슬람에 대한 정부의 후원이 점차 축소됨으로써 이슬람의 정치적 활동이 우선 채정적 기반을 상실하였다(Sudarsono et al., 1986:215). 이슬람은 자카르타 정부와 정책을 비판함으로써 사법적인 제재를 받아 왔다. 그동안 정치적 무슬림들은 수하르토 정부에 대해서 파괴분자이자 테러리스트로서, 또한 군부의 반대자 또는 비평가로서 묘사되어 왔다. 따라서 정부의 억압은 증대되고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이들의 참여는 극히 제한되었으므로 무슬림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개선되지 않았다.

1973년 자카르타 정부는 Golkar를 제외한 모든 정당에게 2개의 신당(新黨)으로 통합할 것을 강요하였다. 그중에 하나인 PPP는 NU와 Parmusi를 포함한 구 이슬람계 정당들로 조직됐다. 비록 NU가 신당 내에서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카르타 정부는 조종이 용이한 Parmusi계 지도자들에게 당 지도부를 맡게 함으로써 정부는 PPP를 보다 쉽게 조정할 수 있었다. 자카르타에서 PPP 지도력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PPP는 당의 상징인 카바(ka'abah)를 고수함으로써 지방 이슬람 지도자들과 전통적 충성심, 그리고 이슬람적 이미지를 유지해 오고 있었다.

수하르토 정부는 다음 단계로 PPP가 그들의 유일한 기본원칙으로서 국가철학인 빤짜실라를 채택하도록 강요하면서 이슬람정당과 이슬람 간의 연결고리를 끊어 버리려는 시도에 착수했다. 과거의 오랜 논쟁에서 빤짜실라는 이슬람정당과 대항해왔다. 많은 이슬람 행동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정부라는 개념은 당연하게 이슬람에 대한 종속의 상징이었다. 정부의 의도에 따라 PPP지도자들은 당의 유일한 기본원칙으로 재빨리 빤짜실라를 채택하였으며, 더 이상 이슬람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당의 상징인 카바를 포기했으며 동시에 비이슬람계에게도 당원 자격을 개방하기 위해 당의 강령을 수정하였다. 그러나 NU, 무함마디야 그리고 무슬림대학생 조직인 HMI를 포함한 다른 이슬람 조직들은 처음에는 빤짜실라를 유일한 기본원칙으로 채택하는 안에 맹렬하게 반대하였다. 그러나 결국 정부의 압력과 PPP 지도층의 체면을 세워주어야 한다는 타협이 이루어져 결국 빤짜실라 채택에 마지못해서 동의하게 되었다.

## (2) 뺨짜실라와 그 비판

수하르토의 군사정부가 강력하게 추구하는 뺨짜실라정책의 기본 요체는 ‘다양성 속의 통일성’(unity through diversity)이다. 인도네시아의 역사와 문화유산의 필연인 다양한 요소를 통치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위해서 통일된 한 가지 형태로 집약하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뺨짜실라정책 하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치지향적인 이슬람도 정치적 색깔을 포기하고 여타의 종교와 마찬가지로 ‘한 가지 형태’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제도권 내의 종교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널드 에머슨(Donald Emerson)은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통일’을 국가의 기본정책으로 삼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뺨짜실라를 도구화하려는 쟈카르타 정부의 역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에머슨은 인도네시아 정치발전을 관망하기를 정부와의 충돌없이 이슬람 문화를 발전시켜온 과정에서 알제리나 수단의 경우보다 훨씬 성공적이었다고 덧붙이면서 혁 단계에서 정통 이슬람주의자들이 굳이 이슬람국가를 지향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그러나 경쟁이나 대결보다는 협의에 바탕을 둔 합의, 가족적 화합, 그리고 상부상조라는 전통적 가치를 근간으로 하여, ‘누구나 참여하는 아래로부터의 흐름’을 중요시해온 전통을 염두에 둔다면 수하르토 정부의 뺨짜실라정책은 ‘필요한 사람만이 참여하여 지도하는 위로부터의 흐름’이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 다양성의 존중과 통일성의 우선이라 는 상대적인 개념에 대한 우선 순위를 말하는 일반론적인 논의에서 쟈카르타 정부는 국가의 통일이라는 대명제를 최우선하여 뺨짜실라는 한 가지 색깔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슬람에 대한 뺨짜실라화 정책은 많은 정통 무슬림들에 대해서 반발과 투쟁의 소지를 제공하였다. 뺨짜실라가 이슬람의 상위에 존재한다는 정책을 이들은 용인하기가 어려웠으므로 신질서 시기를 통해서 정치와 이슬람 간의 갈阂이 끊임없이 전개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일반적 개념으로서의 사회정의·인간성·민주주의 등의 개념과 뺨짜실라에서 말하는 동일한 단어의 개념이 과연 동일한가 아니면 차별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쟈카르타 정부의 뺨짜실라정책은 무슬림들의 알라에 대한 신앙을 모든 인도네시아 주민들의 최고신에 대한 신앙으로, 여당인 골카르에 대하여 통일개발당(PPP)이나 인도네시아민주당(PDI) 등의 야당을 정부의 동반자로 만들었다. 이러한 뺨짜실라정책은 비단 종교와 정치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사회에도 예외없이 적용되었다. 뺨짜실라 산업관계(HIP: Hubungan Industrial Pancasila)라 하여 노동운동에 대한 사전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도 뺨짜실라 정책을 적용하였다(신윤환, 1990:106). 즉, 전지전능한 신과 국가와 민족, 사회와 이웃, 노동자와 가족 그리고 회사에 대하여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책임감을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국가정책을 사용자를 통하여 모든 노동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뺨짜실라인 것이다.

## 2. 주요 이슬람세력의 탈 정치화 양상

### (1) 인도네시아 이슬람정당의 쇠퇴

1977년 선거에서 PPP의 약진은 샤크르타 정부로 하여금 정치사회단체의 통폐합과 압력·협박 등이 이슬람의 정치적 열망을 좌절시키는 데 생각한 만큼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었다. PPP는 여전히 군부가 희망했던 자발적이며 온순한 단체와는 거리가 멀었다. 골카르는 비록 전 의석의 6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였지만, PPP의 예상 밖의 선전은 군사정부로 하여금 PPP와 PDI의 내부 문제에 대규모로 간섭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신시켜 주었다. PPP의 지도권은 샤크르타 군사정부에 순응하는 나로(J.Naro)의 수중에 있었다. 1978년에 PPP 의장으로 자리를 옮긴 그는 그때부터, 1987년 4월의 총선거에서 참패함으로서 아제 출신 정통이슬람주의자인 이스마일 하산 메타레움(Ismail Hasan Metareum)에게 의장직을 빼앗길 때까지 PPP에서 가장 큰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 NU로부터 당의 통제권을 장악하는 일에 진력하였다.

NU는 모든 정당이 뺨짜실라의 이념을 수용하라는 정부의 압력에 항거하여 해당 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었을 때 집단적으로 퇴장하였다. 이에 대한 조처로 PPP의 나로 의장은 1982년 총선에 나설 후보 명단에서 NU 지도자들과 협의도 없이 요주의 인물을 삭제하였다. NU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나로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PPP 후보를 인정했다. 1982년 선거 이후 NU는 곧 당파싸움에 빠져 들었다. 그 주요 논쟁은 당연히 그들이 PPP에 남느냐, 아니면 떠나느냐에 집중되었다. 1960년대 아래 정당으로서 NU를 이끌어 왔던 이드함 할리드는 NU를 PPP에 남게 하기 위해서 싸웠다. 압두르라흐만 와히드를 추종하는 다른 파는 PPP로부터 물러날 뿐만 아니라 정치에서도 완전히 손을 뗄 것을 주장하였다. PPP로부터의 탈퇴를 주장한 이들은 1926년의 정치세력화 이전의 뿌리로 되돌아가 NU는 더 이상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다시 한번 사회·종교조직이 되고자 하는 노선을 취했다.

정부는 말할 필요도 없이 정치 이슬람의 실체 안에서 야기된 분쟁에 무관심하지 않았다. 나로는 정부의 완전한 지지를 받고, 대통령 수하르토 자신이 나로의 지도노선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지지를 표시했다. NU의 내부 마찰에 있어서 정부는 와히드의 노선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비정치화된 NU가 정치적 실체로서의 NU보다 훨씬 더 그들에게 유리했기 때문이었다. 와히드는 점차 군부에 추종하게 되었으며 1987년 10월에는 의회에서 여당인 골카르의 대표자로서의 자리를 수락할 정도가 되었다.

NU 내의 분열은 그 조직을 계속해서 불구로 만들었다. PPP에 남기로 결심한 NU의 한 분파는 와히드와의 관계가 문제가 되어 NU로부터 강제로 사퇴당했다. NU 지도부의 봉파는 지방 올라마에 의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졌다. NU가 PPP에 남아 있었을 때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문제는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대체로 해결되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문제들은 PPP 지도부와 골카르의 지도자로 변신한 와히드와 NU 사이의 계속되는 불화로 대부분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PPP는 1984년 당의 지도원리로 빠짜실라를 받아들임으로써 이슬람정치연합으로부터 개방당(開放黨)으로 전환한 것이다. 그러므로 PPP는 더 이상 이슬람당이 아니며 당의 상징인 카바(Ka'abah)도 빠짜실라를 상징하는 인도네시아 국장(國章)인 가루다(Garuda)에 나타난 황금색 별로 대체되었다. 정치권으로부터 NU의 후퇴와 더불어 이같은 털이 슬람 정책은 1987년 4월 선거에서 PPP에 대한 통렬한 비판으로 나타났다. PPP는 총의석 400석 중 61석을 확보한 사상 최악의 지지율인 15.97퍼센트에 머물고 만 것이다.

## (2) NU와 무함마디야의 탈정치화

### 1) NU의 경우

현재 가장 주요한 이슬람조직인 NU는 가장 든든한 지지기반을 갖고 있었다. NU는 1900년대 초 중동에서 돌아온 이슬람 학자와 정통이슬람을 신봉하는 무슬림들에 의해 이슬람 현대주의 운동에 대한 반발로 1926년 샤바에서 설립되었다. 현대주의자들은 그 당시 중동에서 부활된 '순수 이슬람'과 인도네시아의 이슬람이 상당한 차이가 있음도 알게 되었다. 그러나 NU의 전통주의자들은 무함마드(Muhammad)에게 돌아가는 그들의 이슬람 사상이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져 내려왔다고 믿고 있으며 비이슬람적 요소가 침투한 것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였다. NU 종교학교를 이끄는 끼야이들은 정치문제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해 주는 '끼땀꾸닝(kitab kuning)'을 대대로 보존해오고 있다. 여러 세대를 거쳐 내려왔기 때문에 노랗게 색깔이 바랜 깍밥꾸닝은 전통적 권위와 명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NU는 구시대의 관습에 의구심을 품고 있는 '현대주의자들'의 사상에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산뜨리계 농민들의 충성심을 얻고 있었다. 1971년 선거에서 모든 정당들이 민심을 집중시키는 데 실패했으나 NU만이 1955년의 경험을 살려 실제적으로 다소나마 선거결과를 개선시켰다. NU는 1971년 선거에서 녹립된 정당으로서 경험을 벌여 여전히 동부 샤바에서 35퍼센트, 그리고 중부 샤바에서 25퍼센트의 고정표를 확보함으로써 샤바의 농촌지역에서 거의 확고한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asit Adnan, 1982:46-48).

NU의 정치적 목표는 언제나 스스로를 제한하였다. NU는 경제정책·행정개편·이주·외교정책 등과 같이 정책 차원의 국가적인 문제에는 절대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는 열정적으로 관여해왔다. 오랜 기간동안 NU의 주된 정치적 목표는 종교부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NU의 전체적인 이익을 제고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NU의 지도자들은 정부와의 유대관계 개선에 총력을 집중해왔다. 1970년대 말에 NU의 젊은 지도자들은 당 최고 지도자들의 대(對)정부 유화정책을 조정하도록 요구했으나, 반영되지는 않았다. NU의 비평가들은 그것을 비원칙적 기회주의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드함 할리드 등 NU의 지도자들은 'NU는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시종일관하게 당의 원칙을 추구해 왔으며, 그 원칙 중의 하나는 언제나 이슬람계가 정부를 대표한다는 것'이라는 견해를 변함없이 가지고 있다. PPP로부터 큰 주류의 하나가 빠져나가기 전까지 NU는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동시

에 직접적인 정치적 역할은 피해 왔다.

이러한 NU가 정당으로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종교·사회적인 조직으로서 설립됐을 당시인 1926년 원칙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하였다. PPP로부터 스스로를 완전히 소외시킨 NU지도자들은 NU당원들이 다음 선거에서는 골카르를 포함한 어떠한 당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동시에 NU 당원들이 PPP에서 직책을 갖는 것을 엄중하게 금지시켰다. 얼마간의 논쟁이 있은 후 마침내 NU도 '유일한 기본원칙'으로서 빤짜실라를 수용하였다. 반일 정부가 이슬람에 대해서 극도로 공격적인 정책을 채택하지 않았더라면 정부에 대한 NU의 충성심은 보다 확고했을 것이다. NU의 정신적 지도자인 로이스 암(Rois Am)은 정부가 불신과 악을 조장하지 않는 한 이슬람은 정부의 제 규칙에 복종할 것이며 적극적으로 정부시책을 지지할 것이라고 공언하였다(Basit Adnan, 1982:59). 그러므로 NU는 적어도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정부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의 대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정부가 지방의 끼야이들을 존경으로 대하고 그들의 중요문제에 대해서 NU 지도자들과 의논하여 처리하는 한 NU는 스스로를 정부에 순응시킬 것으로 보인다. NU는 장래에 이슬람 국가의 건설 보다는 오히려 NU의 제한된 목적을 위해서 현체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NU의 정치적 침묵은 그 자체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슬람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지자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 2) 무함마디야(Muhammadiyah)의 경우

현재 인도네시아 이슬람 세계에서 현대주의자들의 조류는 다양한 불만세력 뿐만 아니라 무함마디야(Muhammadiyah)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서구적인 관점으로는 전통주의와 정통의 개념이 함께 현대주의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슬람 사상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현대주의자들이 전통과 정통을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 현대주의자들은 꾸란과 순나(Sunnah 혹은 Sunnat)의 가르침이 무함마드 시대 이후로 쌓아온 전통적 해석과 관습으로 인해서 점차로 상실되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 이슬람의 과업은 꾸란과 순나를 순수함으로 복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NU의 유연성과는 달리, 특히 마슈미와 같은 현대주의자들의 이슬람 조직과 무함마디야는 국가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슬람이 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요구를 절대로 굽히지 않았으며, 적어도 신질서 시대 이전의 과거에는 그들 중의 일부가 '이슬람국가 건설'을 공공연하게 요구했었다. 최초의 인도네시아 현대주의자 조직은 1912년 자바에서 설립된 무함마디야였지만, 이 조직은 그 후에 인도네시아 군도 전체로 세력을 확장하였다. 무함마디야는 시골지역보다는 도시에 거주하며 정규교육을 받은 이슬람교도들에게 더욱 호소력이 있었다. 일본 점령기에 무함마디야는 NU와 그리고 다른 이슬람 조직들과 함께 마슈미에 가입하였으며, 독립 후에는 인도네시아의 주요 정당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마슈미 내부의 분열은 현대주의자들만 그대로 남아 있고 NU가 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진존세력들은 그래도 튼튼한 지지기

반을 가진 당(마슈미)의 관리 하에서 무함마디야의 후원을 받았다. 상대적으로 현대주의자인 이들 마슈미 지도자들의 강경노선 고수는 PRRI에 연루되어 당시 해산되는 운명을 맞았던 것이다.

신질서기에 생겨난 신당(新黨) Partmusi는 마슈미의 후신으로 무함마디야의 후원으로 설립되었으나 무함마디야의 지도자들은 군부에 의해서 신당 참여가 극히 제한되었다. PPP의 설립 이후 NU와 마찬가지로 무함마디야도 점차로 정치의 외곽지대로 떨어져 나갔으며, 앞으로의 선거에서는 회원들이 어느 당에도 투표할 수 있는 자유가 지도부로부터 허가되었다. 그러나 NU가 투쟁의 문제로 정부와 타협하는 것에 비해 무함마디야는 훨씬 비타협적인 것으로 보인다.

NU의 유순한 전통주의자들과는 대조적으로 무함마디야 현대주의자들과 여타의 현대주의자 조직은 수하르토 정권에 불만을 품어왔으며 그 결과 정권으로부터 소외되었다. 국가사회에서 자신들의 적절한 역할로 이슬람의 지위를 고양시키고자 하는 현대주의자들의 희망은 자바출신 아방안계 군부가 지배하는 정부에 의해서 번번히 좌절되어 왔다. 게다가 상당수의 현대주의 행동파들은 군장교와 중국인, 외국인 사업가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있는 정치가들, 그리고 정권의 부패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다. 그러므로 만약 앞으로 기회가 온다면 이슬람 현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확신과 주장을 위한 반정부 활동에 적극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주요 이슬람 세력의 탈정치화는 상대적으로 군부의 정치화를 촉진하고 이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였다. 후기 독립운동기를 거쳐 수카르노의 교도민주주의 시기에 이르는 동안 여러 정치세력 간 경쟁과 갈등구도의 부산물로 이중기능을 지니게 된 군부는 정통이슬람 무장세력과의 투쟁경험 속에 이리안 해방투쟁과 말레이시아와의 대결정책을 통하여 점차 정규군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왔다. 이 과정에서 이슬람 세력은 군부의 득세라는 요인과 조직갈등과 분열 및 세력경쟁 등의 내부적인 원인으로 점차 약화되어 갔다.

9·30 사태로 신질서 시대를 개막한 군부는 이슬람 세력의 부상을 적극 저지하는 한편 골카르로 통치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갔다. 각종 사회단체의 구성과 종교 및 모든 이데올로기는 ‘조직과 사회는 하나’라는 합축된 뜻을 가진 오르마스(Ormas: Organisasi Masyarakat)의 이름으로 국가이념 ‘빤짜실라’ 아래 놓이게 됨으로써 신질서 정부의 빤짜실라 정책은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빤짜실라 체제를 거부할 수 없는 이슬람 정치 세력들이 이로써 점차 정부의 비판자 위치에서 동반자의 위치로 전환되고, 고유한 종교적 색깔마저 탈색하자 PPP내의 주된 이슬람 세력인 NU는 결국 순수한 종교적 기능으로의 회귀를 선언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이슬람사회가 이슬람 특유의 종교적 속성을 포기했다고는 볼 수 없다.

### 3. 신질서 시대의 이슬람 논쟁과 빤짜실라 정부의 대응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국가)에 대한 논쟁은 1962년 다룰 이슬람 운동의 종식과 함

께 사실상 마감되었다. 신질서 시대의 빤짜실라 정책은 골카르의 방대한 조직과 군부의 강력한 통제력, 그리고 군사정부의 치밀하고 강압적이며 끈질긴 노력으로 이슬람국가를 지향하는 제반 이슬람 종교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세속화하고, 나아가서 논쟁을 야기시킬 수 있는 이슬람 조직을 사전에 무력화함으로써 이슬람에 관한 논쟁은 더 이상 인도네시아의 신질서 시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대중이 인식하도록 하는 데 집중되어 왔다.

신질서 시대 개막 아래 사회적으로 부각되었던 주요 이슬람 논쟁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 첫째가 1973년 빤짜실라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혼인에 관한 법률안’이었다. 이 법률안은 무슬림들의 혼인관습을 무시한 채 전체 인도네시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무슬림들의 감정이 비등하게 되었다. 정부는 이 법률안이 국가정책과 국민생활에 부합된다고 설명했으나, 이슬람에서의 결혼원칙과는 상당 부분 상치되는 것이었다 (Noer, 1983:196). 이 법률안은 혼인법을 세속화시키려는 시도로서 이슬람 지도자들에게는 일상생활에서 이슬람의 역할을 축소시키려는 조처로 인식되었다(Suryadinata, 1982: 30). 이와 같은 혼인법이 통과되면 이슬람의 권능이 축소될 것으로 생각한 이슬람 지도자들과 무슬림 청년들은 시위대를 동원하여 거리에서 대규모 시위집회를 갖고 몇 시간 동안 의회를 점거하기도 하였다. 의회에서 PPP는 정부의 법률안에 반대하는 이슬람 조직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후 이슬람교도와 빤짜실라 정부 사이의 최초의 중요한 충돌이었다. 정부는 의회에서 그 법안에 반대하려는 정당들의 어떠한 기도도 차단시키면서, 혼인에 관한 법률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혼인법을 둘러싼 충돌은 더욱 심각했졌다. 그러나 PPP와 이슬람 세력의 완강한 저항 끝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군부와 이슬람계가 서로 부분적으로 양보하는 선에서 매듭이 지어졌다.

둘째는 ‘꺼바띤안(kebatinan)’으로 알려진 쟈바인들의 전통신앙을 국가적 종교관으로 확정하려는 시도에서 발단되었다. 1970년대에 이슬람이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전세계에서 부흥운동을 하고 있을 때 인도네시아의 아방안 통치자들은 국내의 이슬람 운동에 보다 가혹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동시에 쟈바인의 전통신앙인 꺼바띤안의 부흥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이슬람 신앙의 큰 테두리에 힌두·불교와 전통적인 토착신앙이 가미된 꺼바띤안의 부흥운동은 정부에 의해서 주도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수하르토 정부는 이슬람 종교를 공식적으로 적극 권장한다는 대내외 홍보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뾰리아이임을 자부하는 빤짜실라 정부의 군부지도자들이 정통 이슬람 세력의 잠재적인 폭발 가능성을 감소시키려는 시도인 동시에 아방안 세력들의 우위를 더욱 다지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Suryadinata, 1980:128-130).

1978년의 MPR 총회에서 국가강령으로 이를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토의가 불여졌을 때 정부와 이슬람 정당 간의 대립이 심각한 양상을 띠었다. PPP에서는 이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토의결과를 채택하려하자 이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하는 소동을 벌였다. 꺼바띤안과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슬람 교리의 주된 신봉자들이

울라마들과 이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각종 이슬람 단체의 극심한 반대와 강력한 항의에 밀려 즉각적인 결정을 유보하였으나, 이 문제는 그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 정부의 원안대로 채택되었다. 이는 인도네시아에서 모든 사회·정치조직에 대한 규제의 대원칙으로서 빤짜실라 채택이 껴바띤안 단체들에 의해서 환영되기 때문이었다. 이슬람 정통주의자들에 대한 마지막의 경쟁에서 승세를 굳히려는 것처럼 1987년 10월 동부 자바에서 성대한 기념식이 열렸으며, 화란과 이슬람왕국이 인도네시아 군도에 출현하기 전의 힌두·불교왕국이었던 마자빠힛(Majapahit)의 재건을 공약했던 유력한 많은 인사들이 참가했다. 마자빠힛 왕국을 재건하겠다는 상징적 의미는 화란인이 만들어냈던 신화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데, 그들은 누산따라(Nusantara)라는 이름으로 마자빠힛의 통치가 전 인도네시아 군도에 미쳤다고 주장했었다. 그 신화가 인도네시아 제국이라는 통일된 정치적 실체로서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화란에 이용된 후 이 신화는 많은 인도네시아 아방안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인도네시아 민족주의의 상징으로 채택되었던 것이다.

세째로, 이슬람 종교의 상징인 카바(Ka'abah)를 PPP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것이었다. 그러나 PPP는 1977년 선거에서 만약 무슬림들이 선성시하는 카바를 자신들의 상징으로 사용하도록 허락되지 않는다면 총선에서 기권하겠다고 강변하여 선거상징을 내세웠다. 비록 군부는 정치적인 이슬람의 국민적 호응도를 감소시키려는 시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PPP는 이슬람 사회에서 상당한 집결지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1977년 선거에서 1971년에 4개 정당이 얻었던 것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였다. 의회와 행정부에서 PPP의 역할을 증진시킬 만한 정치적인 계기도 없었고 골카르에 비해서 대단히 불평등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이들 이슬람 정치세력은 상당한 탄력성을 보였던 것이다. 카바 상징은 이러한 PPP의 성과가 역기능으로 작용하여 빤짜실라 정부에 의해서 '이슬람 종교'가 아니고 '최고신에 대한 신앙'을 상징하는 인도네시아 국장(國章)에 나타난 황금빛 별로 대체되지 않을 수 없었다.

1980년대 초에 이슬람 세력들의 불만은 크게 확대되었다. 수하르토 정부는 모든 정당과 사회조직들로 하여금 유일한 사상으로서 빤짜실라의 국가이념을 수용하도록 요구하였기 때문이었다. 빤짜실라의 수용은 PPP로 하여금 이슬람 정당으로서의 특성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PPP의 나로와 NU의 이드함 할리드는 정부의 협조자가 되어 비록 이슬람계 다수의 지지는 받지 못하였지만 PPP 내에서 요직으로 이동되었다. 그들은 군부의 물질적인 지지의 도움으로 지방의 끼야이로부터 충성심을 보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여당인 골카르가 울라마를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시작했을 때 이러한 상황은 더욱 혼란스럽게 되었다. GUPPI(Gabungan Usaha Perbaikan Pendidikan Islam)라는 이슬람교육 진보연합이 골카르에 의해서 PPP와의 경쟁을 목적으로 세워졌다. 이슬람교도들의 독단을 억제하려는 시도로서 골카르는 산뜨리와 아방안의 두 이미지를 동시에 부각시키면서 1977년 총선에 임했다. 많은 울라마들이 석유수출로 국가세입이 크게 증가한 정부 당국에 의해서 물질적 혜택을 받으면서 태도를 바꾸었다. 이슬람사원과 빠산뜨렌들은 정부당국에 우호적인 이슬람 단체에 가입한다는 조건으로 자신들의 건물과 시설을 개

선하기 위한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았다. 지방의 군사령관들 역시 현지의 이슬람교와 좋은 관계를 만들고자 새로운 성원(聖院)을 세우는데 많은 기부를 하였다. 정부 역시 많은 공무원을 하지(Haji)의 영예로운 칭호를 얻기 위해서 메카로 가는 정부보조의 여행에 보냈다. 정부는 전통적인 이슬람 조직이 자신들이 직접 선택한 사람을 보내왔던 국제이슬람회의에 정부 관리를 대신 참석시킴으로써 인도네시아가 점차 국제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하였다.

#### 4. 이슬람 폭력투쟁 세력과 빤짜실라 옹호세력의 갈등

신질서 시대의 빤짜실라 정부는 지난 70년대 중반 이후 원유수출로 인한 예상 밖의 국가세입 증대로 획기적인 농업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관개사업과 비료생산, 살충제 생산과 농기계 근대화 및 농자금 방출사업 등 적극적인 농업정책의 추진으로 전 인구의 70퍼센트에 달하는 농촌지역 주민들을 80년대로 들어서면서 기아로부터 벗어나게 하였다. 이로써 수하르토 대통령의 확고한 지지기반인 골카르는 이들 농민들의 열렬한 지지의 대상이 되었다. 골카르와 농촌인구의 지지로 자카르타 정부의 군부지도자들은 보다 과감한 빤짜실라정책을 추진하여 이슬람 정치세력의 불만을 효과적으로 봉쇄해 나왔다.

그러나 이슬람 경전 꾸란이 종교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사이에 분명한 선을 긋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올라마와 끼야이는 언제든지 속세로 빠져들 수도 있고, 이들이 이슬람 공동체 움마에 집단행동을 유발시킨다면 언제라도 알라의 이름으로 폭발적인 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Pye, 1985:274). 70년대 중반 이후 인도네시아는 국제유가의 급격한 상승과 효과적인 농업정책으로 큰 폭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지도층과 관료사회의 부정부패·빈부의 격차·자바와 외곽도서 간의 불균형 발전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이슬람 폭력투쟁세력이 대두되었다. 신질서 시대에 일어난 인도네시아 사회의 크고 작은 소요를 이슬람 세력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국민의 일반적인 인식은 무슬림들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시키는 것이 소요나 폭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정부를 이끌고 있는 군부 지도자들은 군부 지도자들대로, 자바의 경우 대부분의 농민층을 이루고 있는 아방안들은 그들대로 투쟁적인 정통무슬림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초의 가장 큰 대중폭동은 1974년 1월에 발생한 말라리(Malaria)사건으로 불리우는 자카르타 폭동이다. 1973년 8월 중부 자바의 반동에서 소규모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수습을 둘러싸고 반화교폭동으로 발전하여 15만명의 시민과 학생이 폭동에 참가하여 많은 피해를 내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같은 해 10월 대학생과 무슬림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일본의 경제침략과 정부의 오직(汚職)을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의 잦재적 불만이 1974년 1월 다나까(田中) 일본 수상의 인도네시아 방문으로 폭발되어 학생과 시민이 대거 가담한 대규모 봉기로 발전하였다. 일본의 경제적 지배에 대한 항의

와 화교중심의 경제시책에 대한 비판이 반정부 구호로 이어졌다. 정부는 군대를 동원하여 2일 간에 걸쳐 진행된 폭동을 진압하고 각종 대(對)국민 무마용 시책을 서둘러 발표하였다. 비판대상이 되어온 대통령 개인보좌관 제도를 폐지하고 콤파트(Kopkamtip) 사령관을 경질하였으며, 외자도입과 국내투자정책에 민족주의 색채가 강한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말라리 사건과 이슬람 세력과의 연관관계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인도네시아 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고 보면 이슬람과 결코 무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견해이다. 재무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마슈미의 고위지도자의 한 사람이었던 샤프루딘(Sjafruddin Prawiranegara)이 말라리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닐 것이다(Liem, 1984:888).

말라리 사건 이후에 소규모의 이슬람 폭력 투쟁세력이 잇달아 발생하였다. 1978년에는 다를 이슬람 운동의 선구자인 까르또수위르요의 정신을 계승하였음을 자처하는 와르반(Warman)이라는 자가 나타나 동조세력을 모아 태러행위를 자행하였다. 와르반에 의해서 회생된 사람들은 중에는 너그리스벌라스마럿 대학(Universitas Negeri 11 Maret)의 제3 부총장인 빠르만또(Parmanto)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1980년 8월에는 2명의 경찰관도 살해하였다.

와르반 사건이 종결된 후 얼마되지 않아서 임론(Imran)사건이 발생하였다. 임론은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혁명의 불꽃이 피어오르기를 바라는 젊은 무슬림이었다. 1981년 3월 임론과 그의 동조세력은 반동의 한 경찰서를 습격하고, 그곳에서 탈취한 무기로 경찰관을 살해한 후 5명의 피의자를 석방시켰다. 이 사건이 일어난 2주 후에 임론을 포함한 5명의 극렬주의자들은 자카르타와 북부 수마트라의 메단(Medan)을 왕래하는 국내선 항공기를 방복으로 낚치하였다. 이 사건은 방콕으로 공수된 특공대의 신속한 작전수행으로 65시간 만에 종결되어, 4명의 납치범들은 현장에서 작전 중 사살되고 임론 자신도 1주일 후에 체포되어 같은 운명을 맞았다.

와르반과 임론 사건은 극소수의 극렬주의자들에 의해 저질러졌으나, 딴종 빤리옥 사건과 람滂 사건에는 상당수의 무슬림들이 참가하였고 그 만큼 희생자의 규모도 컷으므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1984년 8월 자카르타 북부의 빈민지역인 딴종 빤리옥(Tanjung Priok)에서 아미르 비끼(Amir Biki)는 수천 명의 청중을 모아놓고 정부를 비판하고 이슬람 사상을 고취하였다. 이 과정에서 군중을 해산시키던 군의 하사관이 무슬림들의 예배 장소인 무살라(musala)를 무단 침입했다고 그의 오토바이를 불태우는 불상사가 발생하였다. 이에 관련된 사람들이 해당 지역의 군 사령부에 취조를 받게 되었다.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1984년 9월 아미르 비끼의 선도 하에 억류되어 있는 무슬림들을 석방시킬 것을 요구하며 무리를 지어 군 사령부로 몰려갔다. 군은 이들을 해산시키면서 총기를 난사하여 아미르 비끼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비화되었다.

람滂(Lampung) 사건은 1989년 2월에 발생하였다. 수마트라 남부의 중부 람滂에서 와르시디(Warsidi)라는 인물은 300여명에 달하는 무슬림 추종자들이 기거하는 빠산뜨렌에서 이슬람국가 진설에 대해서 역설하였다. 이들은 와르시디의 설득에 고무되어 투쟁열

기속에서 한 사람의 군 장교(대위)를 살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서 이 빼산뜨렌은 기갑부대와 보병의 공격을 받게 되어, 와르시디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자카르타에까지 연계되었던 와르시디의 조직 또한 단시일 내에 일망타진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빤짜실라 정부의 군부 지도자로 하여금 이슬람세력에 대한 양면정책을 수행하도록 만들었다. 즉, 지속적인 탈이슬람 정책으로 이슬람의 색깔을 완화해 나가면서, 극렬 이슬람세력에 대한 단호한 조처를 취해 가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까지 억제되었던 이슬람교의 전통부장인 절밥(jilbab)을 착용하고 등교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이슬람 사회에 대한 유화적인 제스쳐도 잊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자카르타 정부는 빤짜실라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세력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들 빤짜실라 옹호세력들은 모두 수하르토 주변의 인물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데, 이들 중에 이슬람 세력과 주요 이슬람 지도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다소 의외가 아닐 수 없다. 저명한 이슬람 지도자의 한 사람인 알람사(Alamsjah Ratu Perwiranegara)와 PPP내의 이슬람당인 Perti가 후원하는 ‘겔롬뿌 21(Kelompok 21)’라는 이슬람 단체는 충전 이슬람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단체는 수하르토가 5선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여러 경로를 통하여 자신이 1993년까지의 임기를 끝으로 더 이상 대통령직에 있지 않겠다는 암시가 있자, 수하르토의 영도력과 그간의 업적을 나열하면서 서둘러서 수하르토 6선(1993-1997)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와는 다소 성격을 달리하지만, 수하르토 후계구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선정한 인물의 한 사람인 제5차 개발내각(Kabinet Pembangunan V)의 퇴역 육군대장 출신 내무장관인 루디니(Rudini)를 PDI의 최고위급 지도자의 한 사람인 나수티온(Yahya Nasution)이 차기 대통령 후보로 옹립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신질서 시대의 인도네시아 정치권은 빤짜실라정책에도 불구하고 군부와 공무원을 주축으로 하는 골카르와 이슬람계의 PPP, 그리고 민족주의세력과 기독교계 등 비이슬람계의 PDI 등 3당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PPP와 PDI가 한결같이 자당(自黨) 인물이 아닌 집권여당의 저명인사를 차기 대통령 후보로 추천한 것은 많은 관찰자들을 의아하게 만들고 있다.

겔롬뿌 21의 수하르토 지지와 함께 1974년의 말라리 사건 이후에 등장한 ‘확고한 결정’이라는 뜻을 지닌 ‘꺼불랏딴 폐까드(Kebulatan Tekad)’가 수하르토의 6선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꺼불랏딴 폐까드는 말라리 사건을 전후하여 수하르토의 3선저지 운동으로 어수선한 자카르타 정국을 타개할 목적으로 수하르토의 최고 측근 인물이었던 당시의 공보장관 알리 무르또포(Ali Moertopo)가 관철시킨 것이었다. 모든 이슬람 단체가 ‘꺼불랏딴 폐까드’ 혹은 ‘확고한 결정’에 사전에 동의 서명케 함으로써 특정한 대통령 후보를 어떠한 작은 반대의 소리도 없이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절차를 밟게 한 것인데, 수하르토는 6연임 출마를 촉구하는 ‘정치적 기도문’(Doa politik)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4 차례나 ‘확고한 결정’의 확고한 지지를 받은 바 있다. 꺼불랏딴 폐까드를 추진하는 인물들은 이슬람계 정당을 포함하여 이슬람 사회단체와 이슬람 지도자들이 주축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들 지지서명 단체와 몇몇 지도자들이 인도네시아 이슬람 사회

를 완전히 대변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껴불랏딴 페까드를 긍정적으로 본다면 신질서 정부가 추진해온 뺀짜실라 정책의 성과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수하르토가 아닌 다른 인물의 경우와 비이슬람교도의 경우에도 동일한 적용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라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인도네시아 무슬림지식인동맹(ICMI: Ikatan Cendekiawan Muslim Indonesia)의 등장이다. 수하르토 5차 개발내각의 국토개발 및 과학기술처 장관을 역임한 하비비(B.J. Habibie)와 전임 교육문화부 장관인 후아드 핫산(Fuad Hassan) 등 행정부의 고위 관리와 최고위급 이슬람 지도자 그리고 저명한 대학교수 등이 주축이 되었던 이 모임의 성격에 대해서 많은 관측자들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정부가 이슬람 사회를 고무시켜 국가정책에 보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ICMI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도네시아 이슬람 사회에 대한 관점은 ‘꺼바띤안’을 축으로 하여 정통 이슬람사상이 점차로 ‘인도네시아적인 것’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도네시아 이슬람의 주류는 아방안들의 경우처럼 이슬람의 큰 테두리 안에서 힌두·불교적 성향과 토착종교의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것이라는 결론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적 다양성은 이들 이슬람 사회에도 적용되어, 정통이슬람 세력이 계속 존재할 수 있으며 이들에 의해서 이슬람의 종교적인 어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 V. 결 론

1억 8,500만의 인구 중 88퍼센트가 무슬림인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이다. 전통적으로 이슬람 국가는 ‘정교일치(政教一致)’와 ‘신법통치국가(神法統治國家)’를 지향하며, 인도네시아에서도 국지적이긴 하지만 공화국정부를 수립한 이후에도 몇 차례의 이슬람국가를 건설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일본 식민통치자들은 인도네시아 이슬람을 마슈미(Masyumi)라는 이름 하에 전국적으로 조직화하고 정치력을 가미시켰다. 마슈미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최초 최대의 정치적 세력이 되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이슬람은 중동지역의 이슬람과 비교하여 전래과정·군도적(群島的) 특성·전래시기의 다양성 등이 주된 이유가 되어 종교적 동질성을 결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통 이슬람국가에서의 경우와는 달리 단결되고 정치지향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데 나소 미흡하였다.

인도네시아가 일본 식민통치로부터 독립한 후, 마슈미가 정치일선에 있는 동안 정통 이슬람 무장세력과의 경쟁에서 승리를 거둔 인도네시아 군부는 정치적 입지가 나약했던 수카르노를 도와 고도민주주의(Guided Democracy)를 지지하는 대가로 국방·치안기능과 더불어 직능그룹의 일원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 이중기능(Dwi Fungsi)을 갖게 되었다.

점차로 경쟁관계에 돌입한 이슬람세력과 군부는 1965년 9·30 사태로 새로운 관계로

발전되었다. 즉, 수하르토의 군사정부는 이슬람의 동원능력과 정치적 잠재력을 차단하여 탈정치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교일치와 신법통치국가라는 무슬림들의 절대 불변의 이데올로기를 ‘다양성 속의 통일성(unity through diversity)’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도네시아 전국이념인 빤察실라로 대체하였다.

군부의 권위주의체계가 내세운 정부여당 골카르가 독주하면서 이슬람계 통일개발당(PPP)은 점차로 쇠퇴하게 되었고, 급기야 PPP의 종추세력인 NU가 ‘정치포기·종교회귀’로 돌아서게 되었다. 한편 군부(ABRI)와 골카르가 강력하게 지지한 수하르토는 70년대에 있었던 두 차례의 총선거(1971년과 1978년)에서 상당한 수준의 저항을 경험한 후, 80년대에 안정기에 들어섰고 1983년 ‘국가개발의 아버지(Bapak Pembangunan Nasional)’ 칭호. 획득으로 전성기를 구가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인기도가 점차 하강국면으로 접어들었다. ABRI가 대체로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골카르가 1987년 제 5차 총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까닭은 주목자금을 목표로 한 농업정책의 성공 및 꾸준한 경제발전과 지속적인 발전상황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주된 요인이었다.

1993년 3월의 수하르토의 5년 임기 6선 대통령 취임과 관련하여, 본인의 공식적인 출마표명 이전에 PPP를 포함한 각종 사회단체의 수하르토 지지선언이 쇄도하였다. 그러나 지난 25년 이상 수하르토의 야카르타 정부를 막강하게 지지해온 골카르는 거의 최후까지 침묵으로 일관하였으며, 수하르토 제 5차 개발내각(1987-1992)의 내무장관을 역임한 루디니(Rudini)를 수하르토의 후계인물로 추대하려는 작업은 은밀하게 진행했다. ABRI는 수하르토를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을 내세우지는 않았으나, 수하르토의 노령(1993년에 72세)과 대통령 자녀들에 의한 지나친 family business와 그 폐해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해 왔다.

제 6차 총선(1992년 6월)에서 골카르가 282석을 얻어 원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하였으나, 5차 총선의 73.16퍼센트 득표율에서 67.98퍼센트로 5.18퍼센트가 하락한 것은 ABRI의 태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ABRI와 골카르가 자신에 대한 지지도를 점차 낮추는 것과 관련하여 수하르토는 하비비 등 유능한 경제관료를 발탁하고, 저명한 이슬람지도자를 우대하면서 지속적으로 빼산뜨렌과 이슬람 사원 건립을 지원하는 등 기술관료와 이슬람 세력을 자신을 지지하는 쪽으로 유도해 왔다. 80년대 중반 이후 점차로 하락하는 수하르토의 인기도는 6차 총선의 결과로 이어졌고, 1993년 3월의 제 6차 개발내각(1993-1998)출범과 관련하여 90년대 후반의 수하르토 후계구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비록 이슬람의 이데올로기를 추구했던 경험을 가진 나라이지만, 수하르토의 집권 아래 30년이 넘게 경험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절대적인 영향으로 인해, 인도네시아가 이슬람국가로 발전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지난 70년대의 두차례 총선거를 통해서 표출된 ABRI의 분열이 수하르토 이후에 구체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ABRI가 강은 양 세력으로 분열되고 골카르가 와해될 경우, 분열된 군부는 경쟁적으로 이슬람세력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이때 이슬람세력과 세 휴하는 쪽이 새로운 통치세력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무단하게 대두되고 있는 군부의 이중기능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통령을 선출하고 헌법을 제정하는 인도네시아 최고 권력기관인 국민협의회(MPR)에서 직능그룹의 일원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군부의 임명직 의원 수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견해가 정치학자들 사이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설정이다. 이와 더불어 인도네시아의 전통적인 정치세력인 군부와 이슬람 이외에도 인권단체(NGO)를 비롯하여 민주주의 포럼(Forum Demokrasi)·민주화복연맹(Liga Pemulihian Demokrasi)·민족민주연합(Aliansi Nasional Demokrasi)·민주세력연합(Aliansi Kekuatan Demokrasi Se-Indonesia)등이 많은 지식인들을 규합하고 서서히 시민사회로 세를 확대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어느 단체도 빠짜실라와 45년 헌법(UUD-45)을 반대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민의식의 발달과 함께 전세계적인 공산주의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중국·인도네시아 관계의 정상화·캄보디아 사태의 평화적 해결 등으로 80년대 중반 이전과 같은 강력한 군사정부가 자카르타에 들어설 가능성은 회복하다고 본다. 동(東)티모르 사태에 대한 기존의 강경노선을 최근에 온건정책으로 전환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므로 수하르토의 패밀리 비지니스에 의한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군부와 이슬람이 제휴하는 새로운 형태의 온건 보수세력이 등장할 가능성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된다.

### 〈참 고 문 헌〉

#### 손주영

1987 “칼리프제 復活을 위한 카이로 이슬람會議(1926),”『한국종동학회 논총』(제 8 호), 서울 : 한국종동학회.

#### 신윤환

1990 “노동의 취약성과 국가의 억압적 통제 : 수하르토 체제 하의 인도네시아 사례 연구,”『아시아 문화』(제 6호), 한림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

#### 양승윤

1992 “인도네시아 이슬람의 정치참여에 관한 정치사적 연구”(경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마산: 경남대학교 대학원.

Basit, Adnan H.A.

1982 *KEMELUT di NU antara Kyai dan Politisi*, Solo: CV Mayasari.

Benda, Harry J.

1972 *Continuity and Change in Southeast Asi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Brackman, Arnold C.

1969 *The Communist Collapse in Indonesia*, New York: W.W. Norton.

Crouch, Harold

1976 *30 Tahun Angkatan Bersenjata Republik Indonesia*, Jakarta : Hankam Pusat Sejarah ABRI.

- 1986 *Militer dan Politik di Indonesia*, Jakarta: Penerbit Sinar Harapan, Departemen Pertahanan dan Keamanan Pusat Sejarah ABRI.
- Esterline, John H., and Ma H. Esterline,
- 1960 *How the Dominoes Fell: Southeast Asia in Perspective*, London: Hamilton Press.
- Frederick, William H. and Soeri Soeroto
- 1984 *Pemahaman Sejarah Indonesia: Sebelum dan Sesudah Revolusi*, Jakarta: LP3ES.
- Geertz, Clifford
- 1960 *The Religion of Java*,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assan Muhammad Kamal
- 1980 *Muslim Intellectual Responses to "New Order" Modernization in Indonesia*, Kuala Lumpur: Dewan Bahasa dan Pustaka.
- King, Blair A.
- 1992 "The 1992 General Election and Indonesia's Political Landscape," *Contemporary Southeast Asia*(September).
- Legge, J.D.
- 1972 *Sukarno: A Political Biography*, Sydney: Allen and Unwin.
- Liem Soei Liong,
- 1984 "Indonesian Muslims and the State: Accommodation or Revolt ?," *Third World Quarterly* (April).
- McVey, Ruth T.
- 1984 "Faith as the Outsider: Islam in Indonesian Politics," in Piscatori James P. (eds.) *Islam in the Political Proce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ulkhan, Abdul Munir
- 1989 *Perubahan Perlaku Politik dan Polarisasi Ummat Islam 1965-1987*, Jakarta: Rajawali Pers.
- Noer, Deliar
- 1973 *The Modernist Muslim Movement in Indonesia 1900-1942*, Kuala Lumpur: Oxford University Press.
- 1983 "Contemporary Political Dimensions of Islam," in M.B. Hooker (eds.), *Islam in Southeast Asia*, Leiden: E.J. Brill.
- Notosusanto, Nugroho, S. Kartodirjo, M.D. Poesponegoro(eds.)
- 1977 *Sejarah Nasional Indonesia(Jilid VI)*, Jakarta: Balai Pustaka.
- Palmier, Leslie
- 1973 *Communist in Indonesia*, London: Redwood
- Pranarka, A.M.W.
- 1985 *Sejarah Pemikiran Tentang Pancasila*, Jakarta: CSIS.
- Projokusumo, H.S.

- 1990 *Muhammadiyah: Sejarah, Pemikaran dan Amal Usaha*, Malang: Universitas Muhammadiyah Malang Press.
- Pye, Lucian W.
- 1985 *Asian Power and Politics: The Cultural Dimensions of Authority*, Massachusetts : Harvard University Press.
- Ricklefs, M.C.
- 1981 *A History of Modern Indonesia*, Hong Kong: The Macmillan Press.
- Samson, Allan A.
- 1985 "Indonesian Islam Since the New Order," in Ibrahim Ahmad, Siddique Sharon, and Hussain Yasmin (eds.), *Readings on Islam in Southeast Asia*, Singapore: ISEAS.
- Sudarsono, Juwono
- 1986 "Religious, Ethnic, and Ideological Dissension in the ASEAN States," in Scalapino Robert A., Sato Seizaburo, and Wanandi Jusuf (eds.) *Internal and External Security Issues in Asia*, California: Univ. of California Press.
- Suryadinata, Leo.
- 1980 "Indonesia in 1979: Controlled Discontent," *Southeast Asia Affairs 1980*, Singapore: ISEAS.
- 1982 *Political Parties and the 1982 General Election in Indonesia*, Singapore: ISEAS.

### Islam and Military in Contemporary Indonesian Politics

Seung-Yoon Yang

Indonesia is one of the biggest Islamic states in the world that consists of Muslims of 88 per cent among its entire population. In tradition, Islamic states have pursued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e governed by divine laws so called Syariah on the basis of the union of church and state. Since independence, this politico-religious trend has been also frequently witnessed in Indonesia.

During the Second World War, Japan attempted to politicize Masyumi for her political purpose in Indonesia. As a result, Masyumi emerged as one of the most powerful political parties during the period of parliamentary democracy in Indonesia between 1949 and 1957.

After Indonesian military (ABRI) won the day in a political power struggle against Islamic fundamentalists, they supported Soekarno's Guided Democracy during the period

of 1957 to 1965. During this time, the military strengthened their political power through Dual Function by which they took charge of national defence and public security as well as political roles.

After the coup d'etat of 1965, in an effort to weaken the potential political power of Islamic groups, Soeharto's military government under 'Orde Baru' (New Order) replaced Islamic state ideology with Pancasila ideology which put its main focus on 'Unity through Diversity.'

Since the middle of the 1980s, Socharto's popularity has gradually declined and his unpopularity was reflected in the result of the 6th Indonesian national election held in June, 1992. In consequence, post-Soeharto's political structure now appears as one of the main issues in Indonesian politics.

Accordingly, it will be interesting to predict several possibilities in post-Socharto's Indonesian politics at the end of the 1990s. First, given the fact that Indonesia has been deeply influenced by capitalist economy under Soeharto's Orde Baru for more than 30 years, the advent of Islamic state has very limited possibility. Nevertheless, there is no doubt that Islamic groups including fundamentalists will make strenuous efforts to extend their political power which has been shrunk under Soeharto's military government. Second, ABRI has been divided into two factions, hard-liners and soft-liners. If Golkar is disorganize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two military factions compete for the support of Islamic groups. In this power struggle, considering political changes in Indo-China, and East Timor affair, the military soft-liners might win the day. And they, with conservative Islamic groups, would lead post-Soeharto's Indonesian politics. Finally, at any rate, one should not underestimate Soeharto's influence over the future Indonesian politics for his 'family business.'

양승윤, 한국외국어대학교, 말레이·인도네시아과 교수

주소 : 서울시 도봉구 쌍문 1동 487-87

Tel : 961-4254(O), 906-7771(H)

Fax : 999-9964